

대학생을 위한 포문동 현지교육 ❶

오키나와에서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존을 생각하다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994년 개소한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는
지난 30년간 국내외 학술심포지엄 개최, 출판,
일본학도서관 운영 등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평화공존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는 인문학국플러스지원사업으로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라는 연구 아젠다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2017년 교육부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인문학 거점센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인문학의 사회적 확산과 연구 아젠다의
공유를 위해 생애주기별 인문교육프로그램 및 다양한 인문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차세대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공동체네트워크 조성, 인문자산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재현 연구원과 습도 90% 무더위 속에서
초롱초롱한 눈빛을 발한 학생 15명, 우리를 맞이해 함께해준
메이오대학 학생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 책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입니다. (2017S1A6A3A01079517)

대학생을 위한 포문동 현지교육 1

오키나와에서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존을 생각하다

펴 낸 날 2023년 12월 29일
펴 낸 이 서정완(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소장)

프로젝트 기획자 심재현

프로젝트 참여자 고성준, 김수연, 김원근, 김지연, 김현주, 김혜진, 박종후, 박철웅,
박태규, 신현주, 이영석, 이찬현, 여현정, 윤석희, 이하림

제 작 여름 출판사

펴 낸 곳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전 화 033-248-3215~6
전 자 우 편 japan@hallym.ac.kr

대학생을 위한 포문동 현지교육 ❶

오키나와에서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존을
생각하다

감사의 글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제국일본의 문화권력: 학지(學知)와 문화매체’라는 연구 어젠다로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사업이라는 국책사업을 9년에 걸쳐서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제국일본 본체는 물론이고 식민지 조선과 대만 그리고 만주국과 남양에 이르는 ‘제국일본’이라는 판도 안에서 벌어진 권력과 문화가 엮어내는 동태에 주목해 권력이 문화를 지배하기도 하고 문화가 권력과 결탁하기도 하는 다양한 양상을 밝혀 동아시아 근대사를 ‘문화권력’이라는 시각으로 조명하려는 작업이다. 기존의 일제강점기 연구가 ‘정치권력’ 또는 ‘자본권력’ 중심이었다면 이 연구는 사람의 삶과 사유를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문화권력’을 가운데에 둔다. 특히 1941년 12월에 중일전쟁이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일본정신’이라는 구호 아래에 국민통합을 꾀하고 그들의 ‘국체(國體)’,

즉 천황을 옹위하려는 파시즘의 광기가 동아시아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로써 수많은 동아시아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흔은 현재까지도 제대로 씻어내리지 못했다는 현실은 주지하는 바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총력전체제에서 권력이

극대화될 때 권력과 문화의 본질, 국가와 문화·예술의 관계식을 엿볼 수 있는데, 그 권력에 대한 역사문제, 전후처리문제 등으로 불리는 역사에 대한 빛이 78년 동안 지체되어 있는 오늘날의 국가, 권력과 문화의 관계성과 그 본질은 어떠한가, 어떤 같음과 다름이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발동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재성에 대한 궁금증이 동력이 되어 9년간의 연구 성과를 승계하고 발전시킨 것이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이다.

이 연구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년에 걸쳐 인문한국플러스(Humanities Korea Plus, HK+) 국책사업으로 수행된다. 이들 두 국책사업으로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는 무려 총 16년 동안 ‘문화권력’ 연구에 전념하는 셈이 된다.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역사, 문화, 사회를 주된 활동반경으로 삼는 배경이기도 하고, 제국일본이 붕괴되어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지 7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정산되지 못한 우리의 ‘지금’에 대한 고민이며, 동시에 우리 ‘미래’를 위한 ‘동아시아와 화해와 공존, 협력’을 함께 고민하는 과제이다.

한편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는 지역인문학센터를 통해 강원도에서 인문학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에 인문학을 확산하고 뿌리내리게 하려는 노력을 연구와 사회공헌으로 이루려는 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강원도, 인문학을 품다’라는 여젠다 아래에 ‘책’을 중심으로 인문학을 가까이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인문학이란 사람이 영위하는 삶의 궤적 자체이며, 인류만이 누리는 사유의 한 페이지를 각인해 가는 시간의 흐름이라 할 수 있고, 그러하기에 글과 책은 인류가 걸어온 사유와 고뇌를 담은 보석함이라고 보는 가치관이 있다. ‘강원인문 독서여행’, ‘별빛청소년토론축제’, ‘비블리아 독서문화캠프’, ‘책으로 이어지는 온 세상 책온’, ‘작은책방&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포문동’ 등의

지역인문학센터 프로그램은 바로 그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때로는 석함을 열어보고, 때로는 보존하고 이어가며, 때로는 만들고 즐기기도 한다. 이러한 가치는 우리 연구소가 일본근대사를 중심으로 6만 5천 점에 이르는 일본어 원서 장서를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일본학 전문 도서관인 ‘일본학도서관’을 운영해서 연구소와 도서관을 접목한 새로운 연구소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데서도 구현되고 있다.

우리 연구소는 인류만이 누리는 사유의 한 페이지를 각인해 가는 시간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차세대 인재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 중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을 위한 포문동, 현지교육’ 프로그램이 이 책의 배경에 있다. ‘포문동’은 연구 어젠다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에서 포, 문, 동을 따온 것인데, 한자로 ‘抱問童’이라 적으며, 그 의미는 ‘물음을 품은 어린이’가 인문학을 즐기면서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뜻이다. 10년, 20년 후에 사회를 이끌어갈 대학생이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존, 협력’이라는 문제를 놓고 견문을 넓히며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느끼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 ‘대학생을 위한 포문동, 현지교육’이고, 그 성과를 담은 것이 이 책이다.

2023년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참가 학생 15명과 필자를 포함한 인솔자 2명, 총 17명이 일본 오키나와를 방문했다. 오키나와라는 섬이 품고 있는, 류큐에서 오키나와로 넘어오는 침략과 피지배의 역사와 1945년에 미군의 오키나와 상륙작전으로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에서 유일하게 지상전이 전개된 땅, 일본군에게 학살된 오키나와 주민, 일본군에 선동되어 미군 포로가 되는 것을 피하려고 집단 자해한 주민, 그러나 1972년에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될 때까지 미국에 통치된 사실, 패전 48년이나 지난 1993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천황이 오키나와를 방문한 점, 지금도 일본 방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오키나와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함에도 일방적으로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점 등

본토를 위한 희생을 강요받는 오키나와의 현실, 그리고 징용으로 끌려간 조선인이 미군의 포격으로 일본인과 함께 사망한 아픔의 현장을 찾은 대학생들이 보고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담은 것이 이 책이다. 여기에는 오키나와 메이오(名櫻)대학 학생들과 교류도 포함된다.

학생들이 쓴 글이라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15명이 오키나와라는 땅에서 역사, 문화, 사회를 직접 보고 느끼고, 일본 대학생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느꼈을 ‘같음과 다름’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데 영양소가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한 권이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대학생 15명이 남기는 발자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펴낸다.

마지막으로, ‘2023년 제1차 대학생을 위한 포문동, 현지교육’ 기획부터 이 책이 나오기까지, 지금은 연구소를 떠난 심재현 연구원과 습도 90%라는 무더위 속에서 초롱초롱한 눈빛을 발한 학생 15명, 우리를 맞이해서 함께해준 메이오대학 학생과 교수님, 그리고 부족함이 많은 원고임에도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마법을 보여주신 ‘여름’의 유명화 대표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년 12월 29일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소장/지역인문학센터 센터장

서정완

차례



제1부

우리, 오키나와를 가다

012 오키나와에 이런 역사가 있다고?

류큐국이 오키나와가 되기까지 이하림

제2차 세계대전 중 유일한 일본 내 지상 전투 이영석

일본 내 미군기지의 70% 이상은 오키나와에 있다 고성준

오키나와가 받은 차별의 역사 김지연

030 특강으로 만반의 준비를!

현지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고성준, 김혜진

제2부

우리, 오키나와에 오다

042 오키나와에 도착한 첫째 날

1일 차 감상문: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하림

052 오키나와에서 지낸 둘째 날

2일 차 감상문: 전적지에서 피어난 무궁화와 히비스커스 이영석, 주겐지 아이이

066 오키나와에서 지낸 셋째 날

3일 차 감상문: 손에 남지 않는 기념품 김수연, 김지연, 김혜진, 여현정, 주겐지 아이이

078 오키나와를 떠나는 넷째 날

제3부

우리, 오키나와를 보다



084 경제를 통해 오키나와를 보다

- 오키나와와 한국[동해]의 자원 활용 차이점 김원근
- 코로나 이후 오키나와의 물가 인상 비교 박철웅
- 오키나와 특산물과 현지 경제조사 윤석희
- 한일 전적기념관의 관광 콘텐츠 조사와 발전방안 제언 이하림

112 문화를 통해 오키나와를 보다

- 류큐무라의 관광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에 대하여 김수연
- 류큐무라를 통해 바라보는 종교적 문화와 현대로 이어지고 있는 에이사 김지연
- 오키나와 다크 투어리즘 장소의 다양화를 위한 접근성이 낮은 곳의 개선 방안 제시 김해진
-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생활양식에 대한 비교 박종후
- 오키나와 역사문화관광의 콘텐츠 및 발전 가능성 탐구 신현주
-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오키나와(류큐) 문화와 역사적 배경 여현정

150 역사를 통해 오키나와를 보다

- 오키나와 전쟁, 구 해군사령부호에서 벌어진 참상 고성준
- 한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키나와 역사 교육 김현주
- 국제 정세 한가운데 있는 오키나와의 현재와 평화를 위한 고민 박태규
- 히메유리를 통해 알아본 전쟁의 참혹함 이영석

0

1

2

제1부
우리, 오카나와를 가다





오키나와에 이런 역사가 있다고?

“오키나와를 가기로 했으면서
오키나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류큐국이 오키나와가 되기까지

이하림 / 고려대학교

들어가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두 시간, 남쪽으로 약 2,000km의 하늘길을 타고 날아가면 천혜의 섬 오키나와가 모습을 드러낸다. 오키나와는 아열대의 따뜻한 기후에 몰디브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해변이 드넓게 펼쳐져 있어 바쁜 일상에서 잠깐 짬을 내어 휴양을 즐기기에 아주 적합한 도시이다. 오키나와현 통계과의 지표에 따르면,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마무리되기 시작한 2022년에 관광객 약 677만 명이 오키나와현을 방문했다고 한다. 이는 전년도인 2021년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숫자라고 하는데, 코로나19 이전에는 해마다 관광객 약 900만 명이 즐겨 찾았다고 하니 새삼스레 얼마나 매력적인 관광지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 오키나와가 예전엔 일본 땅

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일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 어디서 들어봤어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 또한 대학교에 들어와서 일본학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사실이다.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의 최남단 가고시마 부근에 있는 아마미 군도에서 남서쪽 대만의 동쪽에 있는 야에야마제도까지 200개에 가까운 섬으로 이루어진 류큐제도를 450년간 통치한 ‘류큐국’이 번성했던 곳이다. 류큐국은 명나라와의 조공무역을 비롯해 일본, 조선 및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들과 중개무역으로 막대한 경제적 번영을 누렸지만, 이와 같은 영광이 무색하게도 중·일 간 세력 변동의 여파로 에도시대인 1609년 사쓰마번(현재의 가고시마현)에 복속되고 1879년 메이지 일본에 최종적으로 강제 병합되고 만다. 이후 일본 본토에서는 오키나와인들의 독자적인 문화를 말살하고 일본 문화로 동화하도록 강요했으며,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일본 본토 침략을 막는 최후 방어선으로 오키나와를 격전지로 삼는 바람에 3분의 1이 넘는 오키나와 주민이 비참하게 죽어갔다. 오키나와는 이처럼 일본이면서 일본이 아닌 무척이나 독특한 역사를 지닌 도시이다. 이제부터 오키나와의 전신인 류큐국과 일본 병합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류큐국의 성립

언제부터 사람들이 류큐 열도에 정착해 문화권을 형성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그 대신 오키나와에서 조몬식 유물과 야요이식 유물이 모두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꽤 오래전부터 일본

본토와 류큐 열도 사이에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류의 생물학적 진화와 변이를 연구하는 체질인류학자들은 “오키나와에서 보이는 평균적 체질인류학적 특징은 모두 일본인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 안에 속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오키나와인은 일본인의 한 지류라는 것인데,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류큐국은 일본 국가의 틀 바깥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국가를 형성한다.

12세기경 오키나와 각 지역에 아지^{按司}라는 호족이 생겨나 작은 정치집단을 형성했다. 이들은 각자 자신들의 구스쿠(성채)를 만들어 서로 대립하게 된다. 14세기에 강대한 아지들에 의해 오키나와 본토에 세 세력권이 출현한다. 나키진^{今歸仁} 아지는 본도의 북부지역을 장악하여 호쿠잔^{北山}이라는 나라를 형성한다. 우라소에^{浦添城} 아지는 중부지역을 장악하여 주잔^{中山}이라는 나라를 만든다. 오자토^{大里} 아지는 남부지역을 장악하여 난잔^{南山}이라는 나라의 패권자가 된다. 이들은 각자 자신을 ‘왕’이라고 자칭하며 약 100년간 다툼을 벌이는데, 이 세 세력으로 양분되는 시기를 ‘삼산^{三山} 시대’라고 한다.

삼산 시대는 결국 끝까지 지속되지 못하고 통일왕조를 맞이하는데, 이 세 국가의 통일은 호쿠잔, 주잔, 난잔의 왕이 아닌 다른 인물이 이룬다. 난잔 휘하에 있던 사시키^{佐敷}의 아지 쇼시쇼^{尚思紹}와 그의 아들 쇼하시^{尚巴志}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난잔을 거점으로 한 작은 호족 집단에 불과했지만, 부자가 협력하여 세력을 기른 후 1406년에 주잔을 공격하여 시쇼가 주잔 왕 자리를 차지한다. 1416년에는 호쿠잔을 공격하여 호쿠잔 땅을 주잔과 통합한다. 1421년에 시쇼가 죽자 아들인 쇼하시가 왕위를 이어 1427년에 난잔을 멸망시킨다. 비로소 유일한 왕에 의해 통일된 왕조인 ‘류큐국’이 성립된 것이다. 류큐국은 명나

라와 조공무역으로 국세를 성장시키는 한편, 조공무역으로 확보한 경쟁력 있는 중국 상품을 기반으로 주변 각국과 증개무역을 해서 큰돈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류큐국이 앞으로 설명할 두 가지 사건에 따라 일본 국가로 편성된다.

사쓰마의 류큐 침략

첫 번째는 1609년에 일어난 일본 사쓰마군^{薩摩軍}의 침공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임진왜란으로 조선을 침략한 후 명나라와 일본의 교류가 단절되고 무역이 금지된다. 에도막부의 초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는 악화된 명나라와의 관계를 수복하려고 그 알선 역할을 류큐국에 요구하지만 류큐국은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 이에 사쓰마번 번주 시마즈씨^{島津氏}가 막부의 허가를 받아 사쓰마군 병력 3,000명을 이끌고 류큐국을 침공한다. 오랜 난전으로 단련되어 있던 사쓰마군에 비해 류큐국은 대외 전쟁 경력이 전무했다. 이러한 차이로 류큐국은 너무 쉽게 패배하여 사쓰마번의 직할령으로 전락하고 만다.

류큐국이 사쓰마번 직할령이 되었음에도 시마즈씨는 류큐국의 독립국적 형식을 유지한다. 따라서 쇼씨 왕조도 계속 명맥을 이을 수 있었다. 이는 류큐의 조공무역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류큐국은 명나라에 신하의 예를 갖춰 주기적으로 사자와 진상품을 보냈는데, 명 황제는 진상품의 가치보다 두 배 이상 값나가는 물건을 답례품으로 내려주었다고 한다. 또 진상품을 싣는 진공선^{進貢船}에는 진상품 외에 무역품도 싣고 갔는데, 이것도 시가보다 값비싸게 사주었다. 사쓰마번은 이러한 조공무역의 관리권을 빼앗거나 연공미와 설탕 등

의 특산물을 착취하는 등 경제적으로 착취를 일삼았다.

메이지 일본의 류큐 처분

두 번째는 1879년에 일어난 메이지 정부의 류큐 처분이다. 1871년, 메이지 정부는 폐번치현^{廢藩置縣}을 단행하여 지방 통치를 담당 하던 번을 폐지하고, 지방 통치기관을 부^府와 현^縣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 조치로 기존의 사쓰마번은 가고시마현^{鹿兒島縣}이 되었고, 류큐도 자연히 가고시마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같은 해에 때마침 류큐국 미야코지마^{宮古島}의 주민들이 태풍을 만나 조난당해 대만 동남부에 표착한다. 이 중 54명이 대만 원주민족 구역에 잘못 들어가 살해되고, 중국계 주민에게 구조되어 살아남은 이들은 그다음 해인 1872년에야 송환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류큐국이 중일 양국에 동시에 예속된 상태를 해소하고 일본에 전적으로 귀속하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1872년 류큐 ‘국’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류큐 ‘번’을 설치한다. 류큐가 일본 영토라는 국내적 조치를 사전에 취해놓은 것이다.

이에 메이지 정부는 청^淸나라 측의 책임을 추궁한다. 일본국에 속하는 류큐 번민^{藩民}이 살해당했으니 대만 원주민을 엄벌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청나라는 ‘대만은 중국의 정령과 교화가 미치지 않는 화외^{化外} 지역’이라며 요구를 회피한다. 결국 1874년, 일본은 대만에 군대를 파견해 원주민을 공격한다. 청나라가 항의하자 메이지 정부는 ‘대만은 중국의 정령과 교화가 미치지 않는 화외의 지역’이라고 한 청나라의 답변을 상기시키며 강경하게 반박한다. 결국 영국의 조정하에 청

나라는 일본의 대만 원주민족 징벌을 인정한다. 이를 근거로 메이지 정부는 류큐인이 곧 일본인이며, 류큐가 일본 영토임을 청나라가 인정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1879년에 ‘류큐 번’을 폐하고 ‘오키나와현’을 세운다. 이로써 450년에 이르는 류큐국의 역사는 종언을 고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유일한 일본 내 지상 전투

이영석 / 한림대학교

들어가며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에서 일하고 4개월, 연구소에서 주관한 오키나와 현지 방문 관련 공고가 올라왔다. 오키나와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1학년 때 발표 주제로 선정해 가미카제 관련 발표를 했던 경험이 떠올랐다. 가미카제와 오키나와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때만 해도 얼마나 관련이 있을지 가늠하지 못했다. 특히 오키나와 전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자료를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다.

태평양전쟁 속에서 일어난 오키나와 전투

제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은 연합군에 비해 절

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먼저 병력 비교만 해봐도 미군은 약 54만 8,000여 명에 항공모함 40척, 전투함 1,500척이 있었지만, 일본군은 병력 약 10만 명에 전함 1척, 전투함 400여 척뿐이었다. 그렇기에 일본군은 오키나와 북부를 포기하고 남부에 있는 슈리성^{首里城}에 병력을 집중하는 작전을 세웠다. 미군이 오키나와 북부에 상륙하여 남하하던 중 4월 1일 하루 동안 규슈 비행기지에서는 전투기 300여 대가 출격하여 미군 전투함 20척을 격침하고 157척을 파괴했다. 바로 여기서 가미카제가 등장한다.

그러나 가미카제가 나온다고 해도 수적으로 우세한 연합군 병력을 막기에는 부족하였고, 결국 오키나와에 남아 있던 병력은 지하에 진지를 만들어 숨어 있었다. 일본군은 애초에 오키나와 전투는 이길 수 없는 전투라고 생각해 시간을 오래 끌어 어떻게든 미군 병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시간이 흘러 4월 중순, 일본군은 야습을 강행하였으나 아군 전사자 1,600명을 냈고 전투는 중지되었다. 그러자 일본군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벌인다.

전진훈^{戰陣訓} 제2장 8조

일본군은 오키나와 주민 중 어린아이들을 선별하여 총알받이로 이용했다. 미군이 아이들에게 약하다는 것을 이용한 작전으로, 아이들에게는 수류탄을 2개씩 주었다고 한다. 하나는 전투 중 위험한 순간이 오면 적에게 던지기 위함이고, 나머지 하나는 자결하기 위함이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 후술 될 내용에 비하면 이마저도 새 밭의 피였다. 미군이 주민들을 학살하고 강간한다는 소문을 퍼트리

고 ‘도조 히데키^{東條英機}’의 전진훈을 주민들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여기서 전진훈이란 일본 군인이 전장에서 지켜야 할 도덕과 마음가짐을 담은 훈령이다. 이 전진훈 중 제2장 8조는 다음과 같다. “수치를 아는 자는 가장 강하다. 살아서 포로의 치욕을 당하지 말 것이며 죽어서 죄화의 오명을 남기지 말라.” 일본군은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공무원도, 주민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전진훈을 주입하였고, 그 결과 주민들은 서로 죽고 죽이기를 반복했다. 이는 주민이 적의 스파이가 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참담한 광경은 미군이 죄책감과 심리불안을 호소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허리와 다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싸워라

5월 4일 일본군이 총공세를 벌여 미군 사상자가 1,300명 발생하고 일본군은 병력의 15%를 상실하였지만, 일본군의 저항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5월 11일 미군이 슈리성을 점령했다. 하지만 아직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오키나와 전투의 군사령관 우시지마 미쓰루^{牛島滿} 중장이 할복하고 나서도 전쟁은 이어졌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남긴 마지막 말 때문이었다. 6월 23일 우시지마는 할복하면서 “허리와 다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싸워라”라는 말을 남겼고, 이에 일본군은 항복하지 않고 전쟁을 계속했다. 이 오키나와 전투로 총 20여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 미군이 2만 7,000명, 일본군이 7만 4,000명을 차지했다. 나머지 12만 명은 오키나와 주민으로 그 수가 가장 많았다. 그렇게 오키나와 전투는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희생된 최악의 전투로 기록되었다.

오키나와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지금 오키나와는 우리에게 여행하기 좋은 섬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번 오키나와 전투를 조사하면서 현재 오키나와에는 이 전투의 흔적이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 있을지 궁금해졌다. 또 오키나와 주민들은 현재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 먼 과거의 일이라며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지 직접 만나서 알아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일본 내 미군기지의 70% 이상은 오키나와에 있다

고성준 / 한림대학교

들어가며

조사지가 오키나와현으로 결정되었을 때만 해도 오키나와가 일본 최남단에 있는 섬이라는 사실과 날씨가 매우 덥고 습하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저 '일본의 수많은 현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조사 주제를 정하고자 오키나와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사를 거듭할수록 오키나와만큼 사연이 많은 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키나와는 다사다난한 역사를 간직한 곳이었다. 나는 그중에서도 이번 오키나와 현지 교육 프로그램 일정 중 방문할 예정인 구 해군사령부호 海軍司令部壕와 히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 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을 중심으로 오키나와 전투 이후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오키나와 전투 이후 이야기

1945년 4월에 미군이 속한 연합군의 오키나와 상륙전이 진행되었다. 상륙전을 일으키기 전부터 이미 판은 연합군이 물자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다. 이를 알고 있던 일본군 또한 슈리성을 비롯해 지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사령부를 배치하고 수성전을 계획했다.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이미 전세는 연합군 쪽으로 기울어졌고,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오키나와는 연합군에게 완전히 점령당했다. 비극적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은 일본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구 해군사령부와 관련해 당시 오키나와 전투 이후 상황을 살펴보자면, 남아 있는 학도병과 일본군들을 제압하거나 생존자를 확보하고자 산 곳곳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연합군이 찾으러 다녔다고 한다. 전쟁 상황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연합군이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해 마지막까지 발악하거나 자결하는 사람들이 다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일본의 옥쇄^{玉碎}를 교육받은 가족 이야기였다. 연합군을 피해 산으로 도망간 가족은 일본제국의 명예를 위해 필요시 자결하라는 전체주의적 사상을 교육받았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당시 상황의 열악함이 극에 달하자, 아버지가 자기 가족을 전부 자기 손으로 죽인 것이다. 그러나 연합군이 아버지에게 전투가 종료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리자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고 한다.

종전 후 미국과 오키나와

미국은 조약 체결 후 오키나와에 캠프와 공군기지를 건설했고, 전쟁이 끝난 이후 오키나와는 1972년 일본에 반환되기 전까지 미군의 점령하에 미국의 통치를 받았다. 현재는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의 70% 정도가 오키나와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오키나와 사람들과 미군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이해 하려면 오키나와 반환 이전 상황을 보아야 한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키나와를 지속해서 통치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오키나와 영토 절반이 미군 기지로 도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용지를 확보하고자 오키나와 사람들의 땅을 뺏고 강매를 유도했다. 또 도심에서 미군의 전투기 추락 사건이 일어나거나, 오키나와인을 대상으로 한 미군 병사의 범죄가 빈번히 발생했다.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오키나와 사람들은 독립 투쟁을 하던 조선과 달리 재정적 여력이 없었기에 오키나와 자체의 주권을 포기하고 일본에 반환되기를 바랐다. 미국과 일본 간에 오키나와 반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에 귀속이 되면 미군이 오키나와에서 철수할 거라고 판단해 일본 귀속을 지지했으나 현실은 달랐다. 미군은 여러 전술 무기를 철거했으나 기지는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으며 기지 축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후텐마 공군기지^{普天間基地} 이전은 오키나와 주민들을 제외한 모두가 주일미군이 남아 있기를 지지했기에 가능한, 배신감과 굴욕의 결과였다. 과거에 엄연히 한 국가였던 오키나와가 항상 추구하던 평화에서 멀어지는 현실을 마주하자 너무나 고통스러운 감정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오키나와가 받은 차별의 역사

김지연 / 한림대학교

들어가며

“여름방학에 일본으로 현지조사하러 가.”

“어디로 가?” / “오키나와.” / “부럽다!”

주변에 현지조사를 간다고 말했을 때 대부분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오키나와의 이미지는 관광지 자체였고, 마음 어딘가에 눌러 간다는 생각이 컸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곳은 아주 당연하게도 ‘일본’이었다. 하지만 현지조사 준비가 진행될수록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사실이 실은 조금 달랐다거나, 관광지로만 여기기엔 슬픈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또 조선과 오키나와가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는 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그 슬픔과

평화를 위한 외침에 닿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키나와를 마주했다. 오키나와인, 류큐국의 후손들은 어떠한 시대를 살았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

오키나와인 차별

“지금도 도쿄에 사는 친구로부터 ‘오키나와는 미군기지가 없으면 생활이 어렵지?’ 하는 따위의 말을 듣는 일이 드물지 않다. … 오키나와에 대한 편견, 멸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그녀는 반복해서 강조했다.”^❶

오키나와에 대한 차별은 19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류큐국은 1879년 폐번치현^{廢藩置縣}을 통해 ‘오키나와현’으로 강제 편입되고 일본의 언어와 문화를 강요당한다. 오키나와의 방언사용을 금지하고 표준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했으며, 이름도 류큐식이 아닌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강요했다. 학교에서는 오키나와 방언을 사용한 학생에게 ‘방언 표찰’을 걸고 다니는 벌칙을 주었다. 방언 표찰에는 ‘나는 방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표찰을 잃어버리는 자는 무거운 벌칙을 준다’라고 적혀 있었으며 목에 걸고 다녀야 했다고 한다. 표찰을 벗으려면 방언을 사용한 다른 학생을 신고해야 했는데, 이는 내부 고발을 유도하는 차별 제도였다.

일본은 조선에 이어 중국까지 침략했고, 1940년대에는 연합국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러자 일본은 1944년 오키나와의 모든 섬을 군

❶ 야스다 고이치(安田浩一), 『오키나와를 향한 차별과 편견의 서신』, 『작가들』, 인천작가회의, 2016.

사 요새로 만들었다. 오키나와에서 일본 본토를 지키려는 전쟁을 미군을 상대로 벌였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앞서 오키나와 전투를 다룬 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전쟁의 희생자 약 20만 명 가운데 오키나와인은 무려 약 12만 명이였다. 특히 오키나와인을 믿지 못한 일본군이 이들을 스파이로 몰아 살해하고 항복과 정보 유출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가족끼리 서로 죽이도록 강요하거나 자살을 강요하여 벌어진 일은 정말이지 참극이 아닐 수 없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배로 오키나와 전투는 막을 내리고 이후 오키나와는 27년간 미국의 통치를 받게 된다. 차별과 인권 문제는 통치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오키나와 땅에 여전히 존재하는 미군의 군사기지로 대립 상태에 있고(헤노코 이전), 미군의 범죄(폭행·살해)와 같은 사회 문제가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어진 것이다.

조선인과 오키나와인

류큐(오키나와)는 1879년, 조선은 1910년 일본에 강제 편입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오키나와 방언사용 금지·일본식 이름 강요’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에 행해진 정책과 닮았다. 이처럼 조선인과 오키나와인이 함께 겪었던 차별은 몇 가지 더 있다.

- ① 1903년 일본 오사카에서 ‘권업박람회’가 열렸다. 그리고 박람회 시설 중 ‘인류관’이라는 곳에는 상품이 아닌 ‘인간’이 민족별로 전시되었다. 당시 인류관 설립 취지서에는 토인^②을 관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쓰여 있었다. 일본인은 아이누

인, 조선인, 오키나와인, 중국인 등을 야만인으로 간주하고 살아 있는 인간을 전 시한 것이다.

- ② 오키나와의 경제적 상황 악화로 일본 본토로 간 오키나와인은 조선인이 거주하는 슬럼가 인근에서 함께 살았다. 같은 일본인인데도 도쿄나 오사카에서는 '오키나와 사람과 조선 사람은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식당에까지 걸릴 정도였다.
- ③ 1923년 일본 본토에서 관동대지진이 일어나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조선인을 학살했다. 이때 오키나와인도 함께 학살당했는데, 류큐어^{琉球語}를 사용했던 오키나와인의 발음이 일본 본토 사람들과 달라 조선인으로 의심받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평화를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 주민들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갈등상태에 있고, 한때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바라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럼에도 오키나와는 평화를 이야기한다. 오키나와 남부의 마부니^{摩文仁} 언덕에는 평화기념공원이 있다.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평화를 기원하며 만든 공원과 기념관이다. 전쟁에서 희생된 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위령비도 세워져 있다. 오키나와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미국인, 조선인 등 약 24만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또한 오키나와 전투가 종료된 6월 23일에는 이곳에서 평화위령제를 열어 희생자를 추모한다. 이처럼 인간으로서 존엄, 평화의 소중함을 말하고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곳은 공원 이외에도 오키나와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 장소 중 일부는 이 현지 교육 프로그램 일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책을 끝까지 읽어 함께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

- ② 비문명화된 지역에 살거나 그러한 생활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을 일컫는 차별적 단어.



특강으로 만반의 준비를!

“오кина와에 가기 전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특강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현지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고성준, 김혜진 / 한림대학교

제0교시

방문지가 오키나와로 결정된 뒤 우리는 현지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지조사’를 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현지조사는 각자 오키나와의 역사와 문화, 경제 등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연구하고 조사하는 일종의 ‘연구조사’이다. 우리는 연구조사라는 이름에 겁을 먹어 주제를 정하는 일부터 쉽지 않았다. 음식문화나 생활양식같이 직접 체험하고 싶은 것들부터 오키나와 전쟁의 역사와 아픔처럼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까지, 주제가 너무 다양해서 선택을 망설이던 우리는 서로 주제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우리 이야기를 들은 일본학연구소의 전임 연구원 심재현 선생님은 이번 현지조사를 가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조사할 수 있는지’와 ‘객관적인 보고

서를 쓸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셨다. 자신이 조사하고 싶은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이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조사인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심재현 선생님의 피드백을 듣고 각자 주제선정과 보고서 작성 요령을 좀 더 생각해보려 했으나 도무지 진전이 없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심재현 선생님은 교수님 두 분을 초빙하여 '사전교육'이라는 이름의 특강을 준비해주셨다. '사전교육'은 이광제 교수님의 '대학생을 위한 연구조사와 방법', 이화봉 교수님의 '전시 기획으로 보는 주제선정'으로 구성되었다.

제1교시

사전교육 당일 오전에는 이광제 교수님이 특강을 해주셨다. '대학생을 위한 연구조사와 방법'이라는 주제로 조사보고서나 계획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을 설명해주셨다.

특강 맨 처음에는 조사 후 쓰는 보고서뿐만 아니라 계획서의 중요성을 언급하셨다. 관련 서적과 논문, 인터넷 자료,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다양하게 접하고 그 과정에서 찾은 자료들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새로운 발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두 가지를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

첫째, 계획서는 '조사 주제', '조사 목적', '조사 배경', '조사 방법'으로 나누어 모든 사항은 '무엇을, 왜, 어떻게'를 명확히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사전지식이 없다면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며 논점을 분명히 하고 기본적인 오자, 탈자도 확인해야 하니 제3자 피드백을 꼭 받아보는 것을 추천하셨다.

둘째, 주제가 결정되었다면 다음은 해당 내용을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계획서에 쓴 내용을 청자에게 구두로 설명하여 계획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더 나아가 설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정한 주제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주제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프레젠테이션을 고른 이유는 자신의 주제를 여러 사람 앞에서 설명함으로써 자기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다른 학생들을 설득하는 것은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강의가 끝나고 교수님은 우리가 쓴 조사계획서를 읽어보셨다. 각각의 문제점에 맞게 ‘대학생 수준에서 알맞은 레벨로 주제를 잘 선정했다’, ‘이쪽은 오히려 주제가 막연하다’ 등의 피드백을 해주셨다. 그 덕분에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갈피를 잡을 수 있었다. 강의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모두 교수님의 피드백을 듣느라 그 사실조차 모르고 한참을 몰두해 있었다.



쉬는 시간



고성준 보고서 쓰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은 물론, 학생 한 명 한 명의 계획서를 세심하게 신경 써서 피드백해주셔서 너무나도 보람찼다.

김수연 각자의 사전보고서를 검토해주시면서 더 나은 방향을 위해 피드백을 해주셨다. 또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프레젠테이션과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다. 내 보고서 작성과 주제를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김원근 오랜만에 기초일본어 강의를 듣는 느낌이었다. 일본어로 진행되는 발표의 표현들에 정해진 대사가 있는 것이 일본답다고 느꼈다. 또 계획서 피드백으로 계획 과정에서 놓친 부분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김지연 조사계획서 쓰는 법을 자세히 배울 수 있었다. 연구를 위해 쓰는 것이 처음 이어서 많이 헤매었는데, 전보다 선명하게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교육을 통해 주제를 좁히고 간결하게 쓰는 법을 익힐 수 있어 감사했다.

김현주 사전교육으로 기획서를 작성하는 방법, 수정하는 방법 등 많은 요령을 터득했다. 물론, 한 번 듣고 바로 시행에 옮길 수는 없겠지만, 미래에 보고서 또는 발표 자료를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김혜진 연구 주제 선정과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애매하게 알고 있던 부분을 확실히 짚어주어 도움이 많이 됐다. 그 덕분에 새로운 주제를 구성하면서 참고를 했다.

박종후 교수님을 오랜만에 뵈 수 있어서 좋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박철웅 교수님께서 직접 계획서를 봐주시고 부족한 점을 짚어주셔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짤 수 있었다. 일본어 회화와 자주 쓰는 어휘를 배우면서 간만에 기초일본어 시간이 떠올라 1학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신현주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었다. 또 프레젠테이션할 때 자주 쓰이는 일본어 어휘도 배울 수 있었다.

여현정 현지 교육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방법뿐만 아니라, 글을 논리적이고 매끄럽게 쓰는 방법도 알려주셔서 유익한 교육이었다. 계획서도 한 명 한 명 자세하게 피드백하면서 현지 교육조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시해주셨다.

윤석희 교수님과의 사전교육으로 자신의 현지조사 주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보냈다.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설명해주셔서 조사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었다.

이영석 연구조사와 조사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해주셨고, 참가자 전원의 개인 보고서 관련 피드백으로 부족한 부분을 알기 쉽게 지적해주셨다.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다.

이찬현 교수님이 보고서 작성 방식 등과 같이 많은 것을 알려주었고 우리의 사전보고서에 대하여 피드백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하림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설명하며 보여주신 영상자료가 기억에 남았다.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고등학생에게 영상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e-Education'의 대표이사인 미와 카이토^{三輪開人} 씨의 프레젠테이션 영상이다. 시청각 자료엔 최소한의 중요한 내용만 담고 나머지 내용은 구두로 듣기 편하게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10분간의 짧은 발표를 진행하더라도 본인 주장에 대한 이해와 수많은 연습이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제2교시

오후의 사전교육은 이화봉 교수님께서 담당하셨다. 자신이 이전에 코엑스의 기획 담당을 맡았던 경험부터 외국에서 지내며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기획했던 일까지, 교수님이 인상 깊게 느낀 경험을 프레젠테이션으로 소개하며 진행되었다.

교수님은 앞서 어떠한 콘텐츠를 기획하려면 계획을 분명히 하고 그에 걸맞은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연구조사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잘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한 학생이 자신은 창의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고 질문하자 교수님은 ‘기획에 창의력은 꼭 필요하지 않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매개체로 합쳐보려는 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변하셨다. 무언가를 시도하기를 두려워하면 안 되며, 직접 경험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바로 조사 주제를 정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 뒤로도 열정과 낭만이 넘치는 여러 이야기를 이어가셨다.

주제를 선정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교수님께서 축제와 컨벤션을 기획한 적이 있는 만큼 MICE 산업 관련 내용을 설명해주셨다. MICE란 Meeting(기업 회의), Incentive Travel(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전시)의 첫머리를 딴 약자이다. 연구조사 및 주제선정과 MICE가 무엇이 관련이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수님은 이 둘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셨다. 바로 두 주제 모두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조사보고서와 콘텐츠 기획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결과물을 통해서 새로운 인연과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쉬는 시간



고성준 코엑스의 이벤트를 직접 통솔·기획한 이화봉 교수님이 경험담과 다양한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있게 풀어내어 내내 즐겁게 들을 수 있었다. 또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전과 즉흥적인 삶의 조화로움을 이해하고 현지조사에 임하는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수연 이화봉 교수님께서 이번 오키나와 현지교육보다는 더 나은 진로를 위주로 강연을 해주셨다. 한림대학교 이야기도 해주시고 한국과 일본의 교류를 다루기도 해서 미래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김원근 중고등학생 시절 이상한 짓이더라도 꾸준히 하면 직업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물론 이화봉 교수님은 이상한 짓을 하시진 않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밀고 나가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니 스스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였다.

김지연 교수님의 삶을 통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작은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 여러 일을 다양하게 시도했지만 그 가운데 주저함 없이 당당히 나아간 삶에 많은 생각이 든 시간이었다. 이번 오키나와 현지교육을 통해 나 또한 작지만 좋은 레퍼런스를 찾아볼 수 있길 기대한다.

김현주 사전교육에서 학교 선배님 혹은 인생 선배님으로서 학우들에게 유익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다. 특히 “항상 뒷주머니에 카드 한 장을 넣고 다녀라”라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다. 이번 오키나와 현지 조사에서 메이오대학 학우들과 교류하며 자신

의 실력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로써 내가 지닌 카드가 '일본어 회화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교류도 꾸준히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김혜진 말씀은 운이 좋아서 자신이 이렇게 잘될 수 있었다는 뉘앙스가 풍겼지만,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 실제로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해나가는 모습을 동경하게 됐다.

박종후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준 교육 시간이었다. 시대에 맞춘 유연한 감각을 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

박철웅 어떤 경험이란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신,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처음엔 흥미로 시작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능력, 즉 필살기가 되어 결국 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이번 오키나와 현지 조사에서도 좋은 경험을 만들어 나만의 능력 기르기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신현주 다양한 축제를 기획하면서 가졌던 감정이나 콘텐츠를 기획하는 데에 어떤 능력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교수님의 스토리를 들려주셨다. 콘텐츠를 기획하는 데 추진력, 계획성도 필요하며 창의력이 없어도 다른 분야로 기획할 수 있다는 말이 콘텐츠 기획을 꿈꾸는 나에게 인상이 깊었다.

여현정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전시 기획에 대해 알고 미디어 전공생으로서 큰 흥미를 느꼈다. 평소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편이었는데, 강의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교수님께서 걸어온 길이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큰 배움을 얻은 감명 깊은 강의였다.

윤석희 교수님의 사전교육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시작한 계기로 세상에 내놓을 카드 한 장을 만들어내면서 일어난 직업과 인생의 변화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 이러한 교육으로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

을 가지게 되었다.

이영석 교수님의 생애를 소개하며 내가 원지, 나 다음이 원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며, 특히 취업으로 고민하는 인원들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나을지 좋은 레퍼런스를 찾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해주셨다. 그 덕분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찬현 마이스와 같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많은 것을 알려주셔서 좋은 강연이었다.

이하림 교수님께서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셨다(1. Content Producer Capability, 2. Community Building Capability, 3. DATA Archiving and Analysis (Interaction Base)). 메이오대학 학생들과의 첫 오프라인 교류회를 앞둔 상태라 위 세 가지 키워드가 더 의미 있게 다가왔다.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고 오프라인 세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는 지금, 이번에 진행될 메이오 대학 학생들과 한림대 학생들 간의 오키나와 현지 교류가 상호 지속적인 만남의 열쇠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하림 교수님의 강연 모습

1

2

3

제2부

우리, 오키나와에 오다





오키나와에 도착한 첫째 날

“아침 일찍 출발하여 도착한 오키나와는
생각보다 더 더웠지만 즐거웠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뚜벅뚜벅, 오кина와의 과거를 걷다

01_구 해군사령부호

태평양전쟁 말기 오키나와 전투에서 구 일본해군 오키나와 방면
근거지 부대의 사령부가 설치한 지하방공호

02_히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

1986년 6월 23일, 오키나와 전투를 간접 체험하면서 느낀
평화의 존엄함을 전하려고 히메유리 동창회가 설립한 자료관

1일 차 감상문 :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하림

태어나서 처음 방문한 오키나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두 시간 반, 나하공항^{那覇空港} 창문 너머 바라본 오키나와의 하늘은 그림과도 같이 맑았다. 출국 전 핸드폰으로 훑어본 날씨 앱에선 오키나와에 있을 나흘 내내 비가 내린다고 적혀 있었지만, 내심 걱정했던 마음이 무색하게 하늘이 새파랗다.

아침 일찍 출발했던지라 점심은 나하공항 안에서 때우게 되었다. 우리가 들어간 곳은 '도토리'라는 프랜차이즈 카페(한국으로 치면 이디야 커피와 비슷한 느낌의 카페인 듯하다), 아이스아메리카노와 핫도그 하나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다. 더워서 그랬는지 커피는 무척 시원하고 맛있었지만, 핫도그 안에 들어 있는 소시지가 내겐 너무 짠다. 오키나와의 땡벌에 내쫓기기 전 나트륨을 보충하라는 가게 측 배

려가 아니었을까. 잡담을 반찬 삼아 배 속에 남은 음식을 욱여넣고 구
해군사령부호로 향했다.

“계속 평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일본의 꼬맹이들은 종이접기를 참으로 좋아하나 보다. 지진피
해 복구를 응원할 때도 힘을 합쳐 종이학을 접어 보내고, 친구가 아플
때도 힘을 합쳐 종이학을 접어 보낸다더니 구 해군사령부호 건물에 들
어가자마자 귀여운 그림과 함께 종이학이 접혀 붙여져 있었다. 삐뚤빼
뚫한 글씨로 ‘ずっと へいわが つづきます ように(계속 평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구 해군사령부호 건물 밖에는 해군 전몰자 위령탑이 우뚝 서 있
었다. 위령탑 뒤쪽으로 평화기념공원^{平和祈念公園}이 자리 잡고 있는 마부니
언덕^{摩文仁の丘}이 한눈에 보인다. 오키나와의 마지막 방위를 맡은 우시지



(좌) 아이들의 그림 (우) 구 해군사령부호

마^{牛島滿}사령관이 섬의 함락과 함께 할복을 택했던 장소로, 현재는 수많은 기념물이 세워지고 과거의 전쟁을 기억하는 평화의 공간으로 형성되어 있다.

죄 없는 오키나와인들을 죽음으로 이끈 가해자는 미군뿐만이 아닐 텐데, 가해자로서 일본군의 측면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였다. 어딘가 찝찝했던 구 해군사령부호에서의 기억이 날아가기도 전에 우리가 몸담은 버스는 히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에 도착했다.

진정한 평화를 무엇인가

구 해군사령부호에서 히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까지는 차로 약 30분가량 소요되었다. 현지 상주 직원을 통해 40분가량의 영상을 보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1시간가량 전시관 내외를 직접 구경할 수 있었다.



(좌) 히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 간판 (우) 오키나와육군병원 제3외과호 터

오키나와현립 제1고등여학교와 오키나와사범학교 여자부에 다니던 꽃다운 청년들은 ‘조국이 곧 승리할 것이다’라는 말만 듣고 오키나와 전쟁에 간호병으로 징집된다. 이들은 포탄이 떨어지는 환경에서 의료기구와 식료품을 운반하고 썩어가는 부상병의 팔을 톱으로 직접 자르는 등 극한의 환경 속에서 고통받다 결국 일본군에게 버림받아 136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게 된다.

앞서 말한 구 해군사령부호와 평화기념공원이 보여주려 하지 않았던 자국군의 가해자로서의 면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히메유리학도대 희생자가 고등여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의 학생들이 아니었다면 과연 그들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 반면, 희생자로서 목숨을 바친 히메유리학도병의 모습이 오히려 전쟁 피해자인 일본의 이미지를 굳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에까지 생각이 미치자 상당히 복잡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오키나와인이 죽음에 내몰린 건 미군 탱크일까, 일본군 탱크일까. 가해자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말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평화’를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 전쟁의 역사는 결코 미화될 수 없다.



Instagram



hallym.japan



고성준 님 외 9명이 좋아합니다

hallym.japan

[#구_해군사령부호](#) [#해군전몰자위령탑](#)

댓글 10개 모두 보기

2023년 7월 12일



고성준 전적지였던 구 해군사령부호, 히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을 보면서 오키나와 전쟁의 참상과 당시 오키나와 사람들의 심각함을 볼 수 있어서 유익한 경험이었어. 특히 해군사령부의 당시 열악한 환경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유지·관리가 잘되어 있는 점이 경악스러웠어.

김수연 당시 사용한 무기나 의복 사진들을 보니까 신기했어.

김원근 관람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과 피해를 본 사람 사이의 괴리가 느껴졌어. 한편으로는 당시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다시 떠오르더라.

김지연 전쟁의 참혹함을 보며 다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게 됐어. 또 평가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도 느껴져. 산소도 잘 공급되지 않는 지하실, 사령실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

김현주 햇빛도 통하지 않는 지하에서 치료도 휴식도 취하지 못하는 군인들 모습이 눈에 생생하게 그려지더라.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 역시 전쟁은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김혜진 나는 영화 <1917>이 떠올랐어. 부상병이 늘어져 있고, 오염에 취약한 영화 속 참호 모습이 겹쳐 보이더라. 당시 얼마나 끔찍했는지 감히 상상이 안 돼.

박철웅 군생활을 해보니 호 내의 좁은 통로가 생활관 대응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는지 기능이 가지 않을 정도야. 정말 열악해도 너무 열악한 환경이야.

박태규 벽면에 적혀 있던 ‘大君の御はたのもとに死してこそ 人と生まれし甲斐ぞありけり(황제 폐하를 위해 전사할 수 있다면 일본인으로 살아온 보람이 있다)’를 보니 당시 일왕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이 보이는 것 같았어. 시대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어떻게 한 사람을 국가가 광적으로 따를 수 있었던 걸까. 호기심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처량하게 느껴져.

윤석희 내부가 습한데 생각보다 보존이 잘되어 있었어. 또 이렇게 좁고 습한, 열악한 곳에 병사가 4,000명이나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야.

이찬현 역사를 좋아하는데도 당시 해군사령부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게 정말 부끄러웠지만 지식이 늘게 된 것 같아.



Instagram



hallym.japan



김수연 님 외 7명이 좋아합니다

hallym.japan

[#히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 [#모금](#) [#목념](#)

댓글 9개 모두 보기

2023년 7월 12일



김수연 평화를 바라는 메시지가 적힌 평화의 나무를 보며 간절히 평화를 바라는 애뜻한 마음이 느껴져 나도 기도하게 됐어.

김원근 히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을 둘러보고 나니 한국에도 이런 자료관이 있는지 찾아보고 싶어졌어.

김지연 학교에 다니던 13살부터 19살까지 다양한 나이의 학생들이 간호업무를 맡았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 도대체 이 전쟁은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 건지 들여다볼수록 처참해.

박종후 당시 히메유리학도대 학생들의 마음이 전해져서 가슴이 아렸어. 강제동원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교사를 꿈꾸는 평범한 소녀의 일상이 어쩌다 그렇게 되었을까 싶어 참 가슴이 아파.

신현주 오키나와 주민들이 받았던 피해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

여현정 지금까지 배운 오키나와의 역사는 일본 본토의 관점, 한국인의 관점이었던 것 같은데 직접 오키나와에 와서 현지에 있는 자료관에서 역사를 바라보니 참 새롭더라. 앞으로는 다양한 관점으로 역사를 공부해야겠어.

이영석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던 학생과 선생님의 모습에 대한 소개, 전시를 통해 느낀 전쟁의 공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같아. 그리고 특별 프레젠테이션을 듣던 중 함께 학교를 다니는 친구 절반 이상이 죽으면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냐는 질문에 슬플 것이라는 말밖에 못했던 점이 마음에 걸려.

이하림 포탄과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장을 뛰어다니며 식량을 보급했다는 이야기, 군인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팔다리가 썩어나가 마취 없이 톱으로 잘라냈다는 이야기 등 히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에서 들은 이야기는 전부 다 너무 충격적이었어. 이걸 실제로 겪고 느끼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이 히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을 건립했다는 할머니의 증언을 듣고 나는 그 고통과 뉘우침, 후회에 감히 공감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어.



오키나와에서 지낸 둘째 날

“오전에는 교육을,
오후에는 교류를!”



뚜벅뚜벅, 과거를 지나 현재를 걷다

01_겐켄화단

일본군 군수물자 보급선 히코산마루에 탑승했던 14명을 위로하는 화단

02_구니가미지대본부호, 야에다케야전병원 터

야에다케에 있는 야전병원의 터와 당시 쓰였던 호.
개중에는 잘라낸 팔다리를 버리는 곳도 있었다고 한다.

03_메이오대학

오키나와 나고시에 위치한 공립대학교.
이 글의 현지교육 중 한림대학교와 교류하는 학교

2일 차 감상문

: 전적지에서 피어난 무궁화와 히비스커스

이영석, 주겐지 아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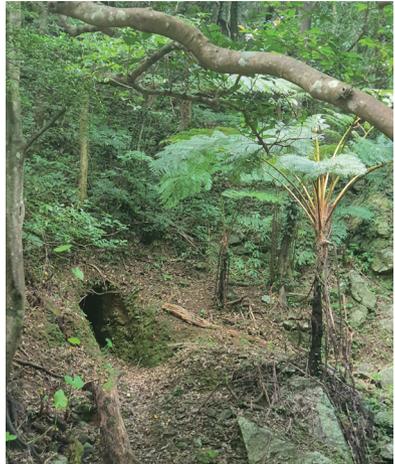
관광하기 좋은 오키나와의 이면

2일 차 오전, 먼저 겐켄화단^{健堅花壇}이라는 곳을 방문하였다. 오늘 하루 전적지^{戰跡地} 해설을 맡은 나카야마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곳은 오키나와 전투 당시 미군의 폭격을 맞은 군수물자 보급선에 탑승했다 사망한 자들을 기리는 장소라고 한다. 그리고 그중에는 조선인도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죽은 조선인을 위해 무궁화를 심어둔 것이 정말 인상 깊었다. 타국에서 보는 조선인과 무궁화, 정말 많은 생각이 든다. 나카야마 선생님은 겐켄화단이 스마트폰 지도 어플에도 뜨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지도를 켜지만 정말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화단을 관리해주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이었다. 오키나와는 많은 사람에게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지

만, 지도에도 보이지 않는 이 화단처럼 오키나와에는 전쟁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전쟁의 흔적

겐켄화단을 방문하고 난 이후 잠깐 이동하여 야에다케야전병원 八重岳野戰病院의 흔적이 남아 있는 장소로 이동하였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파놓은 호가 많이 보였다. 나카야마 씨가 이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것을 들었다. 주변 여러 호가 각각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 특히 의무실과 조금 떨어진 호를 가리키며 저기가 뼈를 묻었던 장소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이 다른 무엇의 자료보다도 한번에 와닿았다. 오키나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특히 태평양전쟁 시기에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다



(좌) 겐켄화단 (우) 야에다케야전병원 터에 있는 호

고 알고 있다. 1일 차에 다녀온 구 해군사령부호와 히메유리평화기념
자료관에서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였
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음을 이번 켄켄화단과 아에다케야전병원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번 현지교육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전쟁
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정말 기뻐다.

다시 밝아진 오키나와의 모습

오전에 유적지를 방문하면서 들은 이야기로 인해 전쟁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동안 어느새 버스가 메이오대학에 도착했다. 전적지 생
각은 잠시 접어두고 같은 대학생 친구들과 만나다니 생각에 정말 기대
가 되었다. 메이오대학에 도착한 우리는 이번 교류가 성사될 수 있게
도와주신 시미즈 선생님의 세미나 학생들과 교류회를 하게 됐다.

먼저 서로 일렬로 서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지
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테이블을 놓고 대화하며 화합의 장을 열었다.
어느 정도 긴장감이 풀리고 난 뒤에는 메이오대학 학생들과 캠퍼스 투



(좌) 2일 차 밤의 불꽃놀이 (우) 메이오대학 운동장을 바라보며

어를 진행했다.

7월의 메이오대학은 정말 더웠지만, 일본인 친구들이 친절하게 도서관부터 자기가 수업을 듣는 장소까지 소개해주니 그 더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런데 메이오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했다. 바로 밖에 나가기 싫을 정도로 더운 날씨에 축구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오키나와를 돌아다니는 것조차 버거웠던 나는 축구하는 친구들을 보고 정말 감탄밖에 안 나왔다.

이후 메이오대학 캠퍼스 투어를 마치고 나서는 숙소로 돌아와 메이오 친구들을 기다렸다. 숙소에서 바비큐파티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자진해서 고기를 굽는 동안 메이오대학 친구들이 계속해서 도와주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 맛있고 재미있었던 저녁이었다. 저녁을 먹은 뒤 메이오대학 친구들이 불꽃놀이를 하러 가자고 해서 메이오 친구들의 차를 타고 해변으로 이동했다. 그렇게 불꽃놀이를 기대하고 간 해변에선 먼저 일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임, 수박 깨기를 하기로 했다. 한림대 학생 중 한 명이 하게 되었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재미있었다. 그렇게 꽤 시원한 수박을 맛보면서 우리는 불꽃놀이를 진행했다.

이번 메이오대학 친구들과의 교류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하지만 즐거운 추억만 남은 것은 아니었다. 한편으로는 전적지와 함께 바라본 과거의 오키나와와 메이오대학 친구들의 웃음이 대비되어 많은 생각이 들었다.

메이오대학 친구에게서 온 편지

한림대학교 학생들과는 메이오대학에서 처음 만났다. 두세 그룹으로 나누어 서로 자기소개를 하는 등 자유롭게 이야기도 나누고, 캠퍼스 투어도 했다. 처음엔 서로 긴장했지만, 한림대학교 학생들이 오키나와에 오기 전에 몇 번인가 온라인 교류회로 얼굴을 본 적이 있다 보니 실제로 다시 만나게 되어 더욱 기뻐했다. 한국과 일본의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 지금 양국에 유행하는 드라마나 음악 이야기를 하며 친목을 다졌다.

저녁에는 한림대학교 학생들이 머무는 호텔에 메이오대학 학



2일 차 저녁 리조트에서 찍은 단체사진

오키나와에서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존을 생각하다

생들을 초대해주어 해변에서 바비큐파티를 했다. 다 같이 밥을 먹으며 학교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허물없이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다. 이때 한림대학교 측에서 메이오대학 학생들에게 과자를 선물해주어 정말 놀랐고 기뻐다.

바비큐파티를 끝낸 뒤엔 다 같이 다른 해변으로 이동해서 수박 깨기랑 불꽃놀이를 하였다. 핸드폰 앨범에 가득한 당시 영상이 얼마나 두근거리고 즐거웠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다.



Instagram



hallym.japan



김원근 님 외 6명이 좋아합니다

hallym.japan

[#겐켄화단](#) [#무궁화](#) [#히비스커스](#) [#히코산마루](#)

댓글 7개 모두 보기

2023년 7월 13일



김원근 타국에 묻힌 한국인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생소하게 느껴져. 역시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에는 국경이 없는 것 같아. 관리해주는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야.

김지연 한국인 두 분도 계시기 때문에 심었다는 무궁화를 보니 기분이 참 묘했어. 그리고 설명해주신 나카야마 선생님 말을 듣고 대만인들도 전쟁에 참여했다는 사실, 한국과 대만과 교류하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힘쓰고 계신다는 말 모두 새롭게 알게 되어 충격이었어. 이런 분들 덕분에 역사가 잊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나니 이 기회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

김현주 세금이 아닌 모토부정^ㄷ 사람들의 모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놀라워. 유골 발굴은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 시도가 있었기에, 이곳을 관리해주는 분이 계시기에 평가가 지속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 한국도 국민이 먼저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행으로 옮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김혜진 맞아 지원받아 만들어진 화단이 아니라 조선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 애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만약 좀 더 재력 있는 사람이 이 화단에 관심을 가져주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하게 되네.

박철웅 한국을 상징하는 무궁화, 오키나와를 상징하는 히비스커스가 기억에 남아. 전쟁 피해로 인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타국민까지 기억해주고 있다는 게 참 감사했어.

여현정 나카야마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화단을 보니 가슴 한쪽에서 편견이 깨진 것 같아.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일본인들도 많구나 하고. 오키나와에 조선인 희생자를 기리는 일본인도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

이영석 난 무궁화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



Instagram



hallym.japan



김수연 님 외 4명이 좋아합니다

hallym.japan

[#야에다케야전병원_터](#) [#구니가미지대본부호](#) [#산](#) [#버스_못_올라감](#)

댓글 5개 모두 보기

2023년 7월 13일



김수연 나카야마 선생님 덕분에 더욱 생생히 와닿았던 것 같아. 지금은 그저 산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게 잔혹하고 아픈 기억이 있었다는 게 더욱 마음 아파.

박태규 전사자들의 유품과 유골이 있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장소인데도 일본 정부에서 관리하기는커녕 개인이 보존하며 발굴 작업을 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 인식 차이를 느꼈어.

윤석희 과거에 파놓은 호와 다듬어놓은 언덕이 있긴 하지만 전적지라는 표지판이 없으면 전적지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는 곳이었어. 전적지임에도 유골 발굴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기억이 남네.

이찬현 나카야마 선생님께서 야에다케이전병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정말 상세하게 알려주어서 감사했어.

이하림 야에다케이전병원에선 오키나와현립 제2고등여학교의 학생들이 '나고란 학도대(なごらん口徒隊)'로 편성되어 여기서 부상병들의 간호 활동에 종사했다. 어제 봤던 히메유리가 떠올라. 그리고 지금 당장 발밑에 채는 유리조각이 당시 사용했던 약병일지도 모른다는 나카야마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 역사적 상흔이 깊게 남아 있는 이 장소도 누군가 기억해주지 않는다면 평범한 공터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게 아닐까?



Instagram



hallym.japan



고성준 님 외 2명이 좋아합니다

hallym.japan

#안림대학교 #메이오대학 #교류회 #바비큐 #수박깨기 #불꽃놀이

댓글 3개 모두 보기

2023년 7월 13일



고성준 메이오대학 학생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학생과 교류하는 것도 뜻깊은 경험이지만, 직접 외국에 방문해 해당 학교를 둘러보거나 시설을 경험하는 것도 정말 독특한 경험이었어.

김수연 직접적으로 메이오대학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이번 교류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들 열렬히 대화한 것 같아. 고등학교 때 캠퍼스투어를 소개받고 다녔던 기억이 나 그리운 감정도 들어. 호텔 복귀 이후에도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

박종후 메이오대학 학생들과 줌으로만 교류하다가 드디어 실제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게 되어 정말 행복했어. 그 덕분에 더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 같아. 친구가 잔뜩 생겨서 기뻐.



오키나와에서 지낸 셋째 날

“메이오대학 친구들과 하루 종일 함께해서
더욱 즐거웠어요.”



뚜벅뚜벅, 양국 교류라는 미래로 향하다

01_한여름의 에이사 공연, 류큐무라

오키나와의 류큐국 시절을 경험할 수 있는 민속촌

02_아메리칸 빌리지

미군의 비행장으로 쓰이던 부지를 반환받아
미국 샌디에이哥的 시포트빌리지를 본떠 조성한 종합쇼핑타운

03_이온몰 라이카무

일본의 대형쇼핑몰. 특히 오키나와에 있는 이온몰 라이카무는
1층에 아쿠아리움이 있다고 한다.

04_주라우미수족관

오키나와의 바다 생태계를 엿볼 수 있는 수족관

3일 차 감상문 : 손에 남지 않는 기념품

김수연, 김지연, 김혜진, 여현정, 주겐지 아오이

한여름의 에이사 공연, 류큐무라

오키나와의 3일 차 오전, 메이오대학 학생들과 함께 류큐무라^{琉球}에 방문하였다. 외관에서부터 오키나와의 류큐국 시절 분위기와 풍경을 느낄 수 있었다. 입장료를 내고 실내로 들어가면 오키나와의 민속의상 체험을 시작으로 각종 만들기 체험, 도기 ‘야치문’을 판매하는 가게, 탈출 게임을 비롯해 많은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7월의 오키나와는 매우 뜨거워서, 우리는 가장 먼저 아이스크림을 각자 하나씩 손에 쥐고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스크림이 다 없어지며 열기도 조금 가셨을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본격적으로 둘러보기 시작했다. 건물 앞 팻말에 적힌 이름은 각각 달랐지만, 붉은 기와지붕은 대부분 비슷했다. 그런데 마침 ‘히가^{比嘉}’라는 성

이 적힌 팻말의 민가가 있는 것, 그리고 내 옆에 그와 같은 성을 가진 친구가 있다는 건 쉽게 잊히지 않을 경험이었다. 나의 성^성이 붙어 있는 옛 민가를 본다고 해도 신기할 텐데, 먼 타국인 오키나와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다.

그렇게 넓지 않은 실내를 둘러보고 실외로 나가면 오키나와의 고온다습한 날씨에 맞게 봉황목을 비롯한 높은 키의 나무들이 반겨준다. 류큐국을 재현한 풍경이 마치 당시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이곳 류큐무라의 유명한 볼거리 중 하나는 바로 에이사^{エイサー} 공연이다. 에이사는 오키나와 전통무용으로 오본^{お盆}에 선대에게 무병식재^①나 가^家내안전 등을 기원하며 공양으로 바치는 춤이다. 실제로 관람한 에이사 공연은 많은 악기가 쓰이지 않았는데도 신나는 분위기와 노래로 흥이 나서 절로 어깨가 들썩였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메이오 대학 친구들과 한림대학교 학생들이 뒤섞여 공연자분과 기념촬영을 할 수 있었다. 관객과 거리가 매우 가까워, 장르는 다르지만 한국의 연극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류큐무라는 단순하게 민속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저 심심풀이용으로 다녀오기에는 에이사 공연을 비롯해 국가 등록유형문화재로 등록된 가옥과 음식 그리고 기념품을 만들



에이사 공연이 끝난 후 기념촬영

① 병 없이 건강함.

수 있는 체험, 전통의상 체험처럼 즐길거리가 많아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그 시대에 있는 것만 같았던 그날의 추억은 마치 손에 남지 않는 기념품과 같았다.

오키나와 안의 작은 미국, 아메리칸 빌리지

‘WARNING RESTRICTED AREA KEEP OUT AUTHORIZED PERSONNEL ONLY’ 아메리칸 빌리지로 향하는 길, 철조망과 함께 있는 문구이다. 허가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이곳에는 미국인들이 거주하는 장소도 있었다. 아메리칸 빌리지까지 운전해준 메이오대학 친구로부터 최근까지도 미군기지로 인한 소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단지 조사로만 아는 내용을 거주자들은 실제로 느낀다.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메리칸 빌리지

나무 때문일까, 건물 생김새 때문일까. 차에서 내리자마자 ‘진짜 미국 같아!’라고 외쳤다. 곧장 들른 카페에는 서양인이 많이 있었고 영어가 큼지막하게 적힌 메뉴판이 있었다.

우리는 ‘졸업하면 뭐 하지’, ‘유학 생활 중 이런 일이 있었어’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한국에서 일 년간 생활해 한국어가 능숙한 친구의

경험담을 듣는 것도, 대학생으로서 취업 걱정이라는 공통점을 나누는 것도 소소하지만 즐거운 시간이었다.

일본의 스타필드, 이온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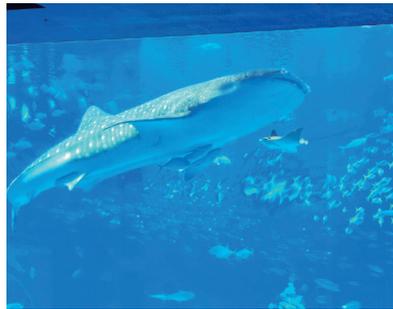
이온몰로 가는 길, 우리 중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 메이오 대학 학생들의 힘을 빌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온몰에서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다. 차에 탄 인원별로 팀을 나눠서 팀별로 운전 해준 친구, 그리고 함께 차에 타서 어울려준 메이오 친구에게 깜짝 선물을 사주는 것이다. 내가 속한 팀은 귀여운 키링을 준비했다. 선물은 이온몰 구경을 마치고 건네줄 예정이다.

한참 구경하고 나니 벌써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다. 우리는 고민하다 회전초밥집을 가기로 했다. 이동하기 위해 차에 탄 우리는 메이오 친구들에게 선물을 건넸다. 친구들은 놀랐고, ‘먼 곳까지 와준 것만으로 감사한데 선물이라니...’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외국에서 온 우리를 환영해주는 걸로 모자라서 차까지 여러 차례 태워준 그들이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말아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다.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로 도착한 저녁 식사 장소에서 그들은 선물에 보답하게 해달라며 저녁을 사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차를 얻어 탔는데, 얻어먹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우리가 저녁을 사게 해달라고 했다. 몇 번의 실랑이 아닌 실랑이 끝에 적극적으로 한국인의 ‘밥을 사는 문화’를 어필하며 우리의 감사 표현 방식이라고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덧붙여 절대 보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자 친구들은 이내 수긍하였다.

저녁까지 먹고 정말 숙소로 돌아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데려가고 싶은 곳이 있다며 맛있다는 패스트푸드 가게로 향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술수에 당해버렸다.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묻더니 냉큼 계산하고 온 것이었다. 결국 그들의 못 말리는 보답 욕구에 우리는 지고 말았다. 서로 뭐라도 더 해주고 싶다는 마음의 핑퐁으로 뜨거웠던 3일 차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오키나와의 바다를 들여다보다, 주라우미

오키나와라고 하면 푸른 바다와 신비한 바다 생물이 생각나는데, 주라우미수족관美ら海水族館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이라 너무 기대되었다. 이동하는 동안 보인 바다는 말로는 표현하기 아까울 만큼 정말 에메랄드색에 가까웠고 ‘파랳다’보다는 푸른, 녹색에 가깝고 투명하게 빛났다. 그 바다에 직접 들어가 보고 싶기도 했지만, 고래상어나 산호, 가오리, 정원장어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참고 수족관으로 이동하였다.



(좌) 이온몰 (우) 주라우미수족관의 고래

주라우미수족관은 총 4층으로 고래상어와 많은 종류의 가오리, 세계 최초의 대규모 산호 사육전시 등 대규모를 자랑했다. 야외에서도 돌고래 쇼를 볼 수 있는 등 정말 많은 생물과 만날 수 있었다. 평소에 볼 수 없는 해양생물과 심해어, 매너티와 같은 동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수족관만의 즐거움이지만, 그 동물들의 역사나 그 지역의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오키나와에만 서식하는 생물들을 볼 수 있는 주라우미는 특유의 푸르고 신비로운 분위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게 되는 매력이 있었다.

사실 주라우미수족관까지 고맙게도 메이오대학 학생들의 도움을 받았다. 메이오대학 학생이 직접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카페에 들르기도 하고 바다에 발을 담그기도 하고 좋아하는 가수나 음식 이야기를 하며 이동하는 내내 쉬지 않고 떠들면서 왔다. 같이 간 한림대학교 학생들끼리 고마움의 표시로 수족관의 표를 샀지만, 그 보답으로 메이오 학생들에게 각자 인형을 선물로 받았다. 인형부터 맛있는 식사와 쇼핑까지, 함께한 하루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나라의 차이라는 벽이 느껴지지도, 어색하지도 않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다. 이후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편지와 선물을 교환하기로 약속했다.

메이오에서 전해온 한림×메이오 교류의 기억

한림대학교 학생들과의 교류 2일 차, 먼저 다 같이 류큐무라를 구경했다. 여러 구역을 함께 돌며 류큐무용이나 에이사 퍼포먼스도

감상했다. 류큐무라는 오키나와의 옛 가옥 조형이 볼거리지만 이외에도 가주마루^{櫓臺} 나무를 보거나 우치나구치^{うちなぐち}를 가르쳐주던 아주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갔다. 한림대학교 학생들이 오키나와의 자연이나 방언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류큐무라에서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는 각자 희망하는 장소가 달라 메이오 측 학생이 차를 내어 주라우미수족관으로 가는 북부 팀과 이온몰로 가는 중부 팀으로 나누어 이동했다.

주라우미로 가게 된 주라우미팀은 오키나와 바다에 사는 수많은 바다 생물을 감상했다. 함께 간 한림대학교의 학생들이 굉장히 반짝거리는 눈으로 수족관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정말로 기뻐했다. 관내를 즐긴 후에는 돌고래쇼를 보러 갔다. 우리보다 한참 더 나이가 많은 ‘오키’라는 돌고래가 있는데, 이 오키를 시작으로 많은 돌고래가 공연을 펼쳐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해주었고 그 모습이 정말 귀여웠다.

다음으로 주라우미수족관이 있는 모토부정^{本部町}에서 나고시^{名護市}로 이동하여 오키나와 소바를 먹으러 갔다. 다다미가 있는 자리에 앉게 되어서 한림대학교 학생들이 ‘일본스럽다’며 즐거워했다. 이내 각자 주문한 소바를 받고 먹으려는데 한림대학교 학생 중 한 명이 고춧가루를 잔뜩 넣어서 역시 한국인은 매운 것을 잘 먹는다는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런 자잘한 부분부터 문화 차이를 느껴 이것 역시 온라인 교류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에 고춧가루를 잔뜩 넣은 학생이 사례들려 기침한 것이 가장 재밌었다.

② 열대 아열대에 분포하는 뽕나무과 상록교목 용수를 오키나와 지방 말로 부르는 말.

③ 오키나와 방언.



주라우미수족관 단체사진

배를 채우고선 스티커 사진을 찍으러 갔다. 한국의 스티커 사진과 비교해 일본의 스티커 사진은 보정을 잔뜩 하기 때문에, 한림대학교 학생들은 보정으로 달라진 얼굴을 보고 놀라면서도 즐거워했다. 이후 돈키호테에 갔다. 몇 년 전부터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제품이 잔뜩 놓여 있는 모습이 신기했다. 우리는 한림대학교 학생들이 술이나 과자를 잔뜩 사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했다. 하루 종일 함께해서 정말로 즐거웠다.

이번 오키나와에서 한 교류회에서는 온라인 교류회에선 할 수 없었던 많은 것을 함께 체험하고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한림대학교의 모두들 덕분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생겼다. 친절하고 사이좋게 지내준 한림대학교 학생들에게도 고맙고, 이렇게 교류할 기회를 주신 한림대학교 선생님들께도 정말 감사하다.



Instagram



hallym.japan



고성준 산신을 주로 한 선율과 노래, 전통무용과 다이코를 이용한 공연은 정말 신선했고 더 오래 보고 싶어.

김수연 주라우미수족관에서 깨끗한 바다와 멋진 풍경, 아름다운 물고기를 보니 오키나와를 더 알고 싶어졌어.

김원근 나는 이온몰 간 게 기억나. 즐길거리가 많았어. 그리고 함께 움직인 메이오대학 친구들의 엄청난 호의에 정말 감사했어.

김지연 아메리칸 빌리지는 일본인데도 정말 서양의 양식이 느껴졌어. 빌리지 내에서도 건물 모양이나 색깔이 오키나와와 정말 다르더라고.

김현주 지리적으로 한국, 중국과 가까워서일까? 전체적으로 두 나라와 오키나와가 비슷하단 느낌을 받았어.

김혜진 에이사를 감상할 때 들은 멜로디가 친숙해서 좋았던 기억이 있어. 제법 잔잔한 멜로디였는데 강한 복소리와 격정적인 동작이 잘 어우러져서 신기했어. 오후에는 메이오대학 친구들이랑 함께 관광했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

박종후 류큐어, 전통 공연 모두 나에게 색다른 경험이었어.

박철웅 류큐무라 안의 한 바위는 구멍이 나 있었는데, 이게 다 총격으로 인한 거라는 얘길 듣고 놀랐어. 지금은 관광지인 이곳 역시 전적지였던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바위인데 아픈 과거를 볼 수 있다 보니 좀 안타까웠어.

박태규 공연 자체는 즐거웠지만, 현재 오키나와에서 류큐문화는 그저 관광상품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소장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어.

신현주 메이오 친구들과 류큐무라와 주라우미수족관을 함께 가서 너무 다행이야. 정말 즐거웠어. 좋은 추억이 된 거 같아.

여현정 류큐문화는 책에서만 봤는데 일본 본토의 옛 문화와는 다른 느낌이라 새로웠어. 메이오대학 친구들이 궁금한 걸 설명해줘서 이해도 잘됐고 정말 유익했어.

윤석희 에이사 공연 덕분에 다이코와 산신 연주, 전통 무용을 통해 과거 류큐국의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어.

이영석 나도 에이사 공연이 기억에 남아. 그때 그 웅장한 복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이찬현 메이오대학 친구들과 수족관에 가고, 쇼핑도 하고. 이게 진짜 교류회라는 생각이 들었어. 한편으로는 일본인의 '오카에시 문화'를 눈물 나도록 실감한 날이기도 했어.

이하림 류큐무라에서 본 사미센 연주의 멜로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 공연이 끝난 후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주셨는데, 상대방 나라의 인사법을 기억해주는 것이 우호의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했어.



오키나와를 떠나는 넷째 날

“오키나와의 더위에 익숙해질 참인데
벌써 돌아가야 한다니 너무 아쉬웠어요.”



Instagram



hallym.japan



고성준 님 외 14명이 좋아합니다

hallym.japan

#바이바이_오기나와 #귀국 #비행기

댓글 15개 모두 보기

2023년 7월 15일



김수연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아서 더 아쉬워. 연락처 교환한 메이오대학 친구들과 앞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더 활발한 교류를 해야겠어.

김원근 4일은 역시 너무 짧은 것 같아. 다음에 오키나와에 갈 때는 꼭 더 보람차게 여행할 거야.

김지연 메이오대학 친구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받았어. 낯설음은 잠시였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는 친구들 덕분에 매 순간 감사했어. 이런 경험 다신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신청했는데, 정말 신청하길 잘한 것 같아. '우호'라는 단어를 실감할 수 있었던 거 같아서 기뻐.

김현주 날씨와 교통이 생각처럼 되지 않았지만, 전적지 방문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메이오대학 학생들과 교류해 좋은 인연도 얻었어.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한일 양국 청년들이 노력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한일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 나중에 교사가 되면 이번에 배운 걸 미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김혜진 이번 현지교육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메이오대학과 교류 측면에서도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어. 물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아쉬운 마음이 더 커서 다음에 꼭 개인적으로 다시 오고 싶다고 생각했어.

박중후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등 많은 경험을 했지만 다소 아쉬운 여정이었던 것 같아. 조금 더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꼭 다시 가고 싶어.

박철웅 집에 돌아가니 우리를 환대해주었던 메이오대학 학생들이 떠올랐어.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번 더 교류하고 싶어. 이번 현지교육 덕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오키나와의 역사를 알게 되어 정말 유익했어.

박태규 집에 돌아갈 때가 되니 기운이 조금 낮아진 것이 아쉬웠어.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니 하나둘 아쉬운 점이 잔뜩 생각나더라고. 이 아쉬움을 다음에 또 오키나와를 방문할 원동력으로 삼기로 하고, 우선은 집에 안전히 귀가해 메이오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신현주 짧은 일정이었지만 현지교육 덕분에 관광을 즐긴 것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공부할 수 있었어. 지식이 풍부해진 기분이야.

여현정 이제 막 친해진 메이오대학 친구들과 헤어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아쉬웠어. 심지어 마지막 날이 오키나와에서 가장 큰 불꽃축제를 하는 날이었다고 하지 뭐야. 정말 하루 더 남고 싶었어. 오키나와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아주 오랫동안 기억될 거야.

윤석희 3박 4일간 별 탈 없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준 모든 분에게 감사해.

이영석 미처 보지 못한 전적지와 부족했던 교류가 아쉬웠지만,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어딘가 가벼웠던 것 같아.

이찬현 오키나와에서 해군이 무슨 일을 했고 히메유리는 무엇이며 오키나와는 어디서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등을 알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아. 이제 당분간은 일본에서 공부할 수도 없고 교류도 없겠지만 다음을 기약할 거야. 이 현지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나를 뽑아주신 교수님께도 정말 감사해.

이하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나흘간의 교육이 드디어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 너머 바라본 오키나와의 파란 하늘은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거 같아.

2

3

0

제3부

우리, 오키나와를 보다





경제를 통해 오키나와를 보다

오키나와 경제조사 보고서

오키나와와 한국[동해]의 자원 활용 차이점

김원근 / 한림대학교

1. 주제 선정

오키나와의 바다 자원 활용 사례를 알아보기 전에 한국의 바다 자원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동해의 경우 수온이 낮아 오징어, 대구와 같이 식용으로 활용하기 쉬운 어종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 때문에 어업이 발달했으며, 해안선을 따라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어 해수욕장으로 활용한 바 있다.

오키나와의 경우 바다 수온이 높아 식용으로 활용하기 쉬운 어종을 쉽게 공급하기는 어렵다. 열대 어종은 헛감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어업이 발달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2. 한국 동해와 오키나와의 바다-관광 상품-

실제로 2일 차 모토후정에 갔을 때, 항구마을과 유사해 보였지만 배들을 어업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배는 요트 형태를 띠었고 규모도 작은 편이었다. 본론으로 돌아와, 어업이 발달하기 어려웠기에 동남아 지역과 교류하며 식문화가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열대성 기후인 섬의 바다는 일조량이 많아서 바다가 밝은 색을 띤다. 즉, 다이빙과 같은 스포츠를 즐기기에 좋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사업이 발달했으며, 류큐무라에서 20분가량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 오키나와 푸른 동굴이라는 스쿠버다이빙 스폿에 도착할 수 있다.

시간문제로 다이빙을 직접 체험하진 못했으나, 근처 다이빙용품 판매점을 찾아가 보았다. 오키나와 국제거리에도 mic21이라는 다이빙용품점이 있을 정도로 오키나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용품들의 판매가는 비교군이 애매하여 비교하긴 어려웠지만 접근성이 좋은 것은 확실했다. 한국의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품은 낚시용품과 해수욕용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강릉 해중공원이라는 다이빙 스폿이 있지만 자연경관을 즐기는 것보다 침몰선을 구경하는 데 의의가 있는 편이다.

3. 한국 동해와 오키나와의 바다-먹거리-

다음으로는 오키나와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을 분석해보았다. 첫 번째는 잔푸루^{チャンプル}다. 처음에는 '고야 잔푸루(여주 볶음)'가 유명하여 이를 맛보려 했지만, 잔푸루 자체가 볶음요리를 지칭하는 말로 여러 종류가 있었다. 맛은 연한 간장으로 볶은 맛이 났으며 바다와

인접한 다른 지역과 다르게 평범한 재료를 이용한 요리에 가까웠다. 함께 나온 밑반찬은 모즈쿠^{もずく}, 한국어로 ‘큰실말’이라고 하는, 오키나와 연안에서 채취한 해조류를 초무침한 것이었다. 한국의 파래무침과 비슷한 맛이지만 비린 맛은 적었다.

두 번째는 호텔식으로 먹은 오키나와 가정식 메뉴다. 중점으로 잡은 것은 국이다. 바다라고 하여 맑은국을 생각했지만, 돼지를 푹 고아 만든 돈코츠^{豚骨}에 가까운 국이었다. 돼지 특유의 향이 강했고, 아주 깊은 돼지국밥의 향이 났다. 오키나와에서 돼지가 사육되기 시작한 배경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성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오키나와의 아와모리^{海盛}를 구매하여 시음해보았다. 한국의 막걸리와 같이 쌀을 사용한 주류이지만, 증류주라는 점에서 막걸리와는 차이가 난다. 도수가 아주 높고 사케 향이 나는 소주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반적으로 더운 지역이지만 음식의 간이 세지 않았고, 바다에 접한 지역치고 확실히 해산물류가 많지는 않았다. 현지에 존재하는 음식 중 초밥과 같은 요리는 일본 본섬의 주 양식재료인 방어를 사용했고, 그 외에도 고등어, 한치와 같은 차가운 바다에서 나타나는 생선류가 많았다. 추가로 메이오대학 학생들이 오키나와는 햄버거 브랜드 A&W가 인기 있다고 알려주어 조사해보았다. A&W는 본래 미국의 햄버거 브랜드로 과거 주일미군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현재는 오히려 미국보다 오키나와에서 인기가 더 많다고 한다. 이곳에서 루트비어는 아주 생소한 경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다음으로 맥도날드가 2순위였고 버저킹, 롯데리아, KFC 등은 체인점이 많지 않고, A&W가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 이후 오키나와의 물가 인상 비교

박철웅 / 한림대학교

1. 주제 선정 과정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에서 주최한 포문동 해외현지교육 참여 기회를 잡아 2023년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오키나와 체험에서 코로나 이후 물가상승폭을 조사하여 한국과 비교해보았다.

최근 지속적인 엔저를 겪고 있는 일본은 물가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관광,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인 오키나와는 어떤지 직접 경험해보고 기록하였다. 이하 사진과 함께 3박 4일간의 경험을 토대로 서술한다.

2. 날짜별 상품가격 기록

오키나와에서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존을 생각하다

1일 차_2023. 7. 12.

오키나와에 도착해 처음 들른 프랜차이즈 커피점인 ‘도토리 커피’의 커피는 300엔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80엔 정도 올라(2019년 S사이즈 커피 220엔) 약 36.36%의 상승치를 보여준다. ‘도토리 커피’와 비슷한 한국의 커피 프랜차이즈 ‘이디야 커피’의 커피는 3,200원으로 (R사이즈 기준) 2019년과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디야 커피’를 비롯한 한국 카페들은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음료의 가격을 200~700원 인상한 것으로 볼 때 한국 카페가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점
‘도토리 커피’의 커피



도토리 커피의 핫도그

2일 차_2023. 7. 13.

2일 차 프로그램으로 오키나와 메이오대학 방문 및 교류회 시



2일 차 메이오대학 교류회 당시 사진

간이 예정되어 있었다. 필자는 사전계획에서 교류 시간에 코로나 이후 오키나와의 물가는 어떤지를 질문할 계획이었다. 대부분 학생들이 “조금 오른 것 같다”, “확실히 오르긴 했다”라고 응답했다. 이 설문조사를 고려해 대형마트, 자판기, 음식점 등을 비교하여 기록하였다.

3일 차_2023. 7. 14.

3일 차 프로그램으로 예정된 오키나와 관광지인 류큐무라 입장료는 코로나 이전 1,200엔에서 2023년 1,500엔으로 25% 상승하였다. 엔저로 화폐가치가 낮아져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류큐무라 실내로 향하는 참가자들



이온몰 외관



이온몰 내부



이온몰 라이카무 안의 쿠라스시

이를 한국 용인에 있는 민속촌과 비교해보았는데, 코로나 이전 입장권이 20,000원(2020)이었으나 코로나 이후 32,000원(2023)으로 무려 60%가 인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자유 현지조사 시간에는 오키나와 내 대형마트 중 하나인 ‘이온몰 라이카무’에 가기로 결정하였다.

3일 차 저녁식사를 라이카무 내부에 위치한 회전초밥 프랜차이즈 ‘구라스시’에서 먹었는데, 100엔이던 초밥 가격들이 115엔으로 15% 인상되어 있었다(메뉴마다 상이). 또한 회전초밥들의 개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다(‘일본 회전초밥 장난 사건’으로 인한 영향으로 더 언급하지 않음).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회전초밥 가게들은 한 접시에 1,900~2,200원 사이에 분포되어 있었다(스시마린 남양주 호평점, <https://sushimarin.modoo.at/>).

위 지점의 경우 코로나 이전 1,800원(2019)이었으나 코로나 이후 약 22.22% 인상되었다. 회전초밥의 경우 예전 가격으로도 일본이 가격이 낮아 우리나라가 더 체감이 많이 되었다.



MaxValue 나고점의 채소 코너



구 해군사령부호 근처 자판기



이온몰 라이카무 내 자판기

2.1. 정리

이번 오키나와 현지조사에서 가본 맥스밸류, 이온몰 라이카무에서는 필자가 3년 전에 사이타마에서 생활했을 때의 물가와 약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나하시 맥스밸류에서 본 숙주는 55엔(세금 포함 59엔)이었다. 숙주의 경우 규모의 경제로 가격이 낮지만 과거 약 30엔에 분포되어 있던 가격에 비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판기 음료 ‘포카리스웨트’, ‘아야타카^{綾鷹}’ 등의 가격이 150엔으로 코로나 이전과 오르지 않거나 약간의 상승이 있었다(150엔→170엔).

3. 결론 및 한계점

이번 조사에서 초기 예상했던 일본 본토 수입품이 많아 가격대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를 얻었다. 지속적인 엔저를 겪고 있는 일본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면서도 한국보다 높지 않은 인플레이션을 보여주었다. 일본은 지역마다 최저시급도 다른데, 더 나아가 시민 인식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경험이었다.

본 자료의 한계점은 적은 상품 자료로 인해 정확한 물가 측정이 어렵다는 점, 품목 종류가 다양하여 비교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 3박 4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주제로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식재료 같은 하나의 주제를 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더 확실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추후 조사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사전조사와 좁은 주제 선정이 필요할 것이다.

오키나와 특산물과 현지 경제조사

윤석희 / 한림대학교

1. 들어가며

현지교육으로 오키나와의 전적지를 답사하고 전쟁의 아픔과 평화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지조사 시간에는 오키나와의 특산물에 대해 살펴보고, 메이오대학 친구들과의 교류로 오키나와의 경제를 조사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2. 조사배경

먼저, 일본 본토와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에서만 볼 수 있는 특산물은 무엇인지 궁금하였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오키나와의 경제는 한국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위와 같은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3. 오키나와 특산물 그 종류

오키나와는 일본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여 아열대기후이기 때문에 특산물은 본토와 다른 것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바다포도가 있다. 그리고 열대과일인 파인애플과 애플망고가 오키나와산으로 판매되는 것을 이온몰에서 발견했다. 그 외에 오키나와 과자로 유명한 진스코와 자색고구마타르트, 오키나와에서 생산되는 소금, 오리온 맥주, 블루썸아이스크림을 눈에 띄게 볼 수 있었다.



왼쪽부터 바다포도, 진스코, 자색고구마타르트

4. 오키나와 경제조사

오키나와에서 이동할 때 종종 등장하는 주유소를 보고 기름값을 대략 확인할 수 있었다. 오키나와의 휘발유는 리터당 150~165엔대, 경유는 리터당 130엔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1,530원대, 경유는 1,350원대로 오키나와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왼쪽부터 오키나와 최저시급, 주유소

이번 메이오대학 친구들과의 교류로 알게 된 것은 일본의 최저 시급은 현마다 다르고, 나고시 부근의 원룸 월세가 춘천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먼저, 오키나와현을 포함한 10개 현의 시급이 853엔으로 다른 현에 비해 가장 낮다는 것을 조사에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원룸의 경우는 오키나와 남부 나하는 4만~5만 엔으로 형성되어 있고, 북부 나고 부근은 3만~5만 엔 정도로 분포가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림 대 주변의 평균 원룸 월세가 35만 원 정도로 나고시 월세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메이오대학 교류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일본의 운전면허 취득비용과 대학 등록금이 있는데, 이러한 비용이 한국과 격차가 커서 놀랐다. 그 이유로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학원을 통해 90만 원 내외로 취득이 가능하지만, 일본의 경우 30만 엔 정도의 취득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공립대학교인 메이오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이 약 50만 엔(국제학부)이라는 것은 한국의 국립대 등록금과 차이가 크게 느껴졌다. 이것은 한국의 국공립대학(인문대 기준)보다 2.7배 높은 것이다.

5. 정리

현지조사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오키나와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특산물은 대체로 디저트류(과일, 과자, 아이스크림 등)가 많고 그 외에는 유리공예나 도자기와 같은 공예품을 판매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디저트류는 소금이나 아열대 지역에서 나오는 식재료를 이용한 것이 오키나와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오키나와에서 느낀 경제는 식료품 구매와 외식물가 부문에서 한국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저렴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것은 주관적 체감으로 품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메이오대학 친구들의 이야기를 덧붙이면 최근에 물가가 조금 올랐다고 입을 모았다.

이곳의 기념품을 보고 일물일가 법칙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일물일가 법칙은 동일한 물건이 다른 곳에서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

을 의미한다. 여기서 본 진스코와 자색고구마타르트 두 상품의 가격이 이온몰, 돈키호테, 공항면세점에서 모두 같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번 조사로 과거 일본의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했던 점이 엔저 효과와 한국의 물가상승으로 공공요금을 제외하면 비슷해졌다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최저시급의 경우 한국이 오키나와보다 높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많이 인상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한·일 전적기념관의 관광 콘텐츠 조사와 발전방안 제언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과 「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하림 / 고려대학교

1. 조사목적

현지 교육 보고서와 영상자료에서는 일본 전적기념관의 관광 콘텐츠를 우리와의 비교 관점으로 조사·분석하고, 향후 우리 실정에 맞는 더 나은 전적기념관 운영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조사대상 선정

본 보고서는 일본 오키나와의 「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히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 이하 「히메유리관」)과 한국의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이하 「납북자기념관」)의 비교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한·일 양국의 비교 대상으로 각 전적기념관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일본의 「히메유리관」은 오키나와현 이토만시에 위치한 전적기념관이다. 오키나와현은 태평양전쟁 중 일본 내에서 유일하게 지상전을 겪은 지역으로, 일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이라는 피해자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히메유리관」은 오키나와 전투 자체에 초점을 맞춘 「旧海軍司令部壕」(구 해군사령부호)나 「沖繩平和祈念公園」(오키나와평화기념공원)과 비교하여 좀 더 ‘민간인 희생’이라는 주제에 집중된 구성을 갖고 있으므로 한국 전적기념관의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기 적합하다. 한국의 「납북자기념관」은 파주시에 위치한 전적기념관이다, 한국의 대표적 안보 관광지인 「임진각」에 인접해 있는데, 6·25전쟁으로 인한 남북 분단 이후 설정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 자리하고 있다. 「납북자기념관」은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납치당해 이북에 억류당한 민간인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 조사에서 「히메유리관」과 비교하기 적합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3. 조사방법

일본 현지 전적기념관의 조사는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에서 주최한 ‘대학생을 위한 포문동 해외현지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됐다. 오키나와 「히메유리관」에 사전 협력을 받아 현장을 방문하여 관찰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기념관 내 교육관에서 40분가량 상주 직원을 통한 영상 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되었으며, 교육이 끝난 후 1시간가량 전시관 내외를 직접 관람했다. 한국 전적기념관의 조사는 조사자 개인이 비공식적으로 방문하여 2시간가량 전시관

내외를 직접 관람하며 관찰조사를 실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 가능한 관광실태 및 성공조건」(국토연구원, 2004)에서 제시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의 요소(관광객의 체험, 관광자원의 유지, 지역사회의 참여)를 토대로 분석 기준을 세워 한국과 일본의 전적기념관 관광 콘텐츠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전적지 관광 콘텐츠의 요소

요소	분석 기준
관광객(의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의 방문 목적 - 각 전적기념관의 전시 내용 - 각 전적기념관의 교육 내용
관광자원(및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 - 주변 편의시설 - 주변 연계 관광시설
지역사회(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연계활동

4. 한·일 전적기념관의 관광 콘텐츠 분석

역사를 공부하는 데서 역사박물관이 차지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서적과 인터넷에서도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을 쉽게 찾는 세상이 되었지만 직접 역사 속 장소로 이동하여 오감으로 체험하는 선명함엔 비견될 수 없다. 특히 한국에서 전적기념관은 역사적 사건과 현실의 문제를 강하게 이어줌으로써 6·25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는 특수성을 지닌다. 북한과 정전 중인 대한민국의 국민 개개인에게 전쟁에 대한 문제의식 성장과 평화 감수성^① 함양은 점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 전적기념관의 관광지화를 통한 접근성 완화가

위 과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답이 될 것이다.

4.1. 「히메유리관」의 관광 콘텐츠 분석

「히메유리관」은 오키나와현 이토만시에 위치한 전적기념관으로, 1945년 발생했던 오키나와 전투에 일본 육군 소속의 ‘히메유리학도대’에 징집되어 사망한 학생들과 선생들을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다. 1945년 3월 23일 밤, 오키나와현립 제1고등여학교와 오키나와 사범학교 여자부 양측 학교에서 총 240명이 징집되어 하에바루에 있는 오키나와 육군병원에 배치된다. 학생들은 ‘조국이 곧 승리할 것이다’라는 말만 믿고 들어가 극한의 환경 속에서 부상병의 간호나 의료가구·식료품·물의 운반, 전사자의 사체 처리 등의 업무를 맡았으며, 최종적으로 오키나와 전투가 끝날 때까지 육군병원에 동원된 136명이 목숨을 잃었다. 1946년 4월 이들을 기리기 위한 히메유리의 탑을 제3외과 방공호에 건립하였고, 참사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참혹했던 당시 체험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1989년 6월 「히메유리관」을 건설하였다.

1) 관광객

「히메유리관」은 일본 내 중·고등학교 학생의 필수 견학 코스 중 하나이며^②, 다크 투어리즘^③ 형태의 관광 코스에서도 빠질 수 없는 전

① 폭력을 폭력으로 인지할 수 있는 민감함과 평화를 저해하는 구조와 요소들을 인식하는 예민함을 의미한다.

② 赤石英夫, 1996, 沖縄修学旅行 全員が書いた『平和宣言』, 歴史地理教育 / 歴史教育者協議会 編(555), 1996, 70-75.

③ 어두운 역사의 현장을 찾는 여행으로, 역사적 지식과 실전이 결합한 관광의 형태 중 하나이다.

적기념관이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329,259명이 「히메유리관」을 방문하였으며, 1989년 6월 23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집계된 총방문자 수는 23,686,615명으로 「히메유리관」이 전시하는 역사적 내용과 사료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히메유리관」의 상설전시관은 로비를 포함해 네 구간으로 나뉘어 전시에 서사를 부여한다. 로비에는 오키나와 전투가 시작되기 1년 전 현립 제1고등여학교 학생들이 졸업식 때 찍은 단체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로비를 지나면 오키나와 전투가 발발하기 이전 히메유리 학생들의 학창생활을 전시해둔 밝은 분위기의 공간이 나타난다. 하지만 다음 장소로 넘어가면 공간의 배색이 급격하게 어두워지며 오키나와 전투 이후의 참상이 드러난다. 히메유리 생존자의 생생한 증언 영상과 당시 육군병원을 재현한 비참한 그림들은 관람객들에게 전쟁의 끔찍한 참상을 적나라하게 각인시킨다. 무거운 마음을 갖고 전시관을 찬찬히 감상하다 보면 오키나와 전투에서 사망한 학생과 교사 227인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된다. 벽에 걸려 있는 227인 전원의 사진이 엄숙한 분위기를 주는데, 그 한가운데에 자리한 제3외과 방공호의 실물 크기 디오라마는 관람객에게 죽어가는 친구들을 버려두고 본인은 살기 위해 떠나야 했던 생존자들의 먹먹함을 느끼게 한다. 마지막 전시관에서는 히메유리 생존자들의 전후^{戰後}를 소개한다. 전시관 분위기도 내용에 맞추어 밝아지는데, 관람객들도 밝아진 환경 속에서 울적했던 마음을 추스르고 전쟁의 어리석음이나 생명의 소중함

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할 기회를 얻게 된다. 「히메유리관」의 모든 동선과 기물 배치는 조화롭게 어우러져 하나의 스토리 라인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히메유리관」은 전시 프로그램 이외에도 20명 이상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평화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히메유리 학도 한 명의 시선이 되어 전쟁 체험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히메유리 생존자들의 증언을 담은 영상을 다 함께 시청하고 「히메유리관」의 교육 강사와 의견을 주고받는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위 프로그램들은 정해진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줌^{ZOOM}으로도 진행되어 실제 오키나와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희망자들에게도 「히메유리관」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2) 관광자원 및 지역사회

「히메유리관」은 나하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한다. 대중교통을 타고 「히메유리관」에 가기 위해선 나하시 기준 환승 시간 포함 약 60~90분이 소요된다. 자가용이나 관광버스를 이용한 단체 이동이 아니라면 상당히 불편한 접근 환경이 될 수 있다. 그 대신 지역 내 교통망이 잘 연계되어 있다는 장점 또한 존재한다. 오키나와의 대표 전적지인 「沖繩平和祈念公園」(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이나 「糸数アブチラガマ」(이토카즈 아부치라가마)에 대한 접근성이 무척 좋아 다크투어리즘의 형식으로 관광 코스를 구성할 수 있다. 또 오키나와의 전통문화나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琉球ガラス村」(류큐 유리마을), 「おきなわワールド」(오키나와 월드) 등의 체험학습 장소도 가까운

곳에 있어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나 가족여행 방문객을 끌어들이 요소가 충분하다고 보인다.

「히메유리관」은 전적기념관의 역할 이외에도 「説明員トーク米軍統治下のひめゆり」(설명원 토크 미군 통치하의 히메유리) 등의 학술회를 개최하거나 이토만시의 교육자를 초청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평화 가이드 육성사업 지원 등 평화 교육에 관련된 긍정적 영향을 지역사회에 발신하고 있다.

4.2. 「납북자기념관」의 관광 콘텐츠 분석

「납북자기념관」은 파주시에 위치한 전적기념관으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납치당해 이북에 억류당한 납북자를 기억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북한 정권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고, 남한 체제의 인력 활용에 타격을 가할 목적 등으로 6·25전쟁 발발 직후 조직적으로 납치를 실행에 옮겼다. 북한 정권의 강제 납북은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에게 가족과 함께 살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채 평생을 그리움 속에 살게 했다. 이들의 명예 회복과 아픔을 위로하고, 국민과 함께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기 위해 대한민국 통일부는 2017년 11월 「납북자기념관」을 건립하였다.

1) 관광객

「납북자기념관」은 대한민국 통일부에서 운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 박물관 협력망에 조직되어 관리되고 있다. 개인 관광객보다는 단체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경향을

보인다. 단체 관광객의 종류도 국립통일교육원 산하 지역통일 교육센터나 경북교육청에서 구성한 독립운동길 순례단 등 주로 국가 기관의 워크숍 혹은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공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문이 이루어진다. 「납북자기념관」은 다른 박물관과 달리 ‘파주시 열린 데이터’나 ‘공공데이터포털’,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중 어디에서도 방문객 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보고서에서의 언급은 생략한다.

「납북자기념관」의 상설전시관은 네 구간으로 나뉘어 이야기를 전개한다. 로비에서는 납북의 정의와 함께 6·25전쟁 납북자에 대한 정의와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로비를 통과하면 ‘분열의 시대’라는 주제로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50년 6·25전쟁 발발일까지 남한과 북한의 시대적 배경을 연표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연표의 후방에서는 6·25전쟁의 전개 과정을 담은 영상이 동시에 재생된다. 다음 장소로 넘어가면 북한의 납북 과정이 전개된다. 북한의 남침 모의 계획과 서울 점령 이후 북한 체제 건설에 필요한 지식인들과 기술자들에 대한 기획납북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문건이 전시되어 있다. 북한군의 철저한 적대세력 색출, 서대문형무소 구금을 거쳐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이후에 진행된 강제복송 과정이 당사자 가족의 실제 증언 영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다음 장소로 넘어가면 대한민국 정부의 납북자 귀환을 위한 노력이 수많은 자료와 디오라마에서 상세히 그려진다. 정부 차원에서 납북자 귀환을 위해 명부를 세세하게 정리하였지만 6·25전쟁은 더는 민족 내전이 아닌 국제 전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정전 협정의 체결도 남한과 북한이 아닌 유엔군과 공산군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공산군이

외국 민간인 무조건 석방을 수시로 언급하며 남한 민간인 석방이 의제화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했음은 물론이다. 정전 협정이 의결된 이후에도 북한은 남한으로 귀향하기를 원하는 남한 민간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납북 피해 가족들은 가족 해체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가장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그리고 납북이 월북으로 오인되어 받는 사회적 불명예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마지막 전시관에서는 납북 문제가 비단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000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연표 형식으로 정리해 관람객에게 납북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고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납북자기념관」은 위와 같은 상설전시 이외에 다양한 특별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51명의 납북자 가족이 기증한 208점의 자료들을 한 노인의 일대기 형식으로 구성한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납북자 가족 및 다세대 가족을 위한 가족 체험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 가족 기억상자」도 매년 여름 개최되고 있다. 「납북자기념관」의 모든 전시는 VR 전시영상으로 업로드되어 각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기념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컴퓨터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 관광자원 및 지역사회

「납북자기념관」은 파주의 대표적 안보 관광지인 「임진각」에 인접해 있다. 다만 「임진각」은 위치의 특성상 자가용이나 관광버스가 아

니면 접근 환경이 좋지 못하다. 「임진각」으로 향하는 대중교통은 058번 마을버스와 문산발 임진강행 전동열차 두 가지에 불과하며, 배차간격도 최소 1시간에서 최대 5시간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주변 관광시설과의 연계는 뛰어나다. 민간인출입통제선 구간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하는 「임진각 평화 곤돌라」, 북한군의 전적지인 제3땅굴을 구경할 수 있는 「DMZ 안보 관광」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이 「임진각」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납북자기념관」을 포함한 안보 관광 코스를 계획할 수 있다.

「납북자기념관」은 매년 납북에 관련한 유물을 공개 구입하여 전시·조사 연구를 진행하며, 또 매달 학예연구사들이 ‘이달의 유물’이라는 칼럼을 매달 제작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이바지하고 있다.

5. 한·일 전적기념관의 특징과 차이점 분석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한·일 전적기념관의 관광 콘텐츠 요소를 토대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양 국가의 전적기념관 모두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현재와 연결 짓는 구성을 취한다(관광객의 체험적 측면). 「히메유리관」에서는 기념관 관람 후 관람객들의 감상문을 받아 관람객의 동선에 배치하고 있으며, 「납북자기념관」에서도 납북자들에게 발신하는 메시지 스탬프 코너를 운영하여 전시관의 한쪽 면에 매달아두고 다음 세대의 참여자를 기다리고 있다. 전적기념관은 수많은 관계자에게 각각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는 당사자 혹은 가족들에게 전적 기념관은 자신들의 아픔을 세상 밖으로 외칠 수 있는 확성기이자 자신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위로의 공간으로 작용한다. 관광을 온 학생 혹은 일반인에게 전적기념관은 전쟁에 대한 주체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평화에 대한 본인들의 깨달음을 미래 세대로까지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둘째, 양 국가의 전적기념관 모두 주변 관광지와의 높은 연계성을 지닌다(관광자원 및 시설적 측면). 「히메유리관」은 오키나와의 대표 전적지인 「沖繩平和祈念公園」이나 「糸数アブチラガマ」에 대한 접근성이 무척 좋아 다크 투어리즘 형식으로 관광지를 연계하기에 용이하고, 「납북자기념관」은 한국의 대표 안보 관광지인 「임진각」의 체험 활동과 연계될 여지가 충분하다.

셋째, 양 국가의 전적기념관 모두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지역사회의 참여적 측면). 다만, 전적기념관이 주체가 되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히메유리관」과 달리 「납북자기념관」은 행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히 수동적인 면모를 보인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관광 콘텐츠 요소적 측면에서 한·일 전적기념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히메유리관」의 상설전시관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주제를 전개하는 한편, 「납북자기념관」은 연표 혹은 도표를 중심으로 주제를 전개하는 경향이 있다. 도표 중심의 내용 설명은 학습자에게 사건의 전개와 흐름을 손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자칫하면 관광

객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지루함의 요소로 여겨질 위험성이 있다.

둘째, 「히메유리관」은 국가 지원 없이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반면(公益財団法人沖繩県女師一高女ひめゆり平和祈念財団 운영), 「납북자기념관」은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인 통일부에서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적기념관의 운영에 대해서도 「히메유리관」은 기념관의 입장료와 평화 교육비 수입, 그리고 기부금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납북자기념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6. 한국 전적기념관의 발전방안 제언

앞서 한·일 전적기념관을 전적지 관광 콘텐츠의 요소를 토대로 살펴보고 그 특징과 차이점을 분석해보았다. 위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 실정에 맞는 더 나은 전적기념관 운영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전적기념관 자체의 관광지화

평화 학습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게 아닌 사람들에게도 돈을 내고 전적기념관을 방문할 만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히메유리관」을 예시로 들어보겠다. 「히메유리관」은 기념관 안에 공원을 조성하여 사람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게 하였다. 또 기념관 밖에 기념품 가게 및 식당이 세워져 있어, 전적기념관 하나만으로 충분한 관광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선 주변에 있는 관광시설과 교통편을 소개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도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

여준다. 위와 같은 조건들이 합쳐져 전쟁에 관심 없던 일반인도 관광 코스의 일환으로 「히메유리관」에 방문하고 나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싹튼 채 기념관을 나오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국의 전적기념관은 단순한 기념관 혹은 박물관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전적기념관 자체를 사람들이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랜드마크처럼 구성하고, 주변 상권을 부흥시키는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방식의 운영이 필요하다.

2) 주변 관광지의 낙수효과 이용

「히메유리관」은 상당히 특이한 사례로, 일반적으로는 전적기념관 하나만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문제는 주변 관광지의 낙수효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 「납북자기념관」의 상황을 예시로 들고 가정해보겠다. 「납북자기념관」 근처에 있는 「임진각」은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땅을 복잡한 허가 절차 없이 손쉽게 방문할 수 있다는 이점을 살려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⁴ 관광객 대부분은 「임진각 평화곤돌라」와 「DMZ 안보관광」을 체험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다.

이 중 파주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관광상품인 「DMZ 안보관광」은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를 구경하는 코스로, 「납북자기념관」의 설립 목적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내용들이다. 통일부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DMZ 안보관광」 코스에 「납북자기념관」 방문을 추가한다면 전

④ 2018년 기준 연간 3,370,898명 방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10&tblId=DT_21002_J015,
“지정(법정) 관광지 현황 및 방문객 수.” 국가통계포털. 검색일자: 2023. 7. 25.

적기념관 측에서는 방문자가 늘어나는 이점이 생기고, 지자체 측에서는 세수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赤石英夫, 沖縄修学旅行 全員が書いた『平和宣言』, 歴史地理教育, 歴史教育者協議会 編 (555), 1996, 70-75.
- 강신겸, 지속가능한 관광실태 및 성공조건, 경기도: 국토연구원, 2004.
- 박길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관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과 독일의 비교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5(3), 2015, 39-74.
- 김민화, 오키나와의 전적지와 기지를 둘러싼 역사실천의 변용-위령 순례에서 오키나와 수학여행까지, 도시연구, (24), 2020, 123-157.
- 문경호, 6·25전쟁 전적지를 활용한 역사교육 방안-세종의 전의·대평리 전투를 중심으로-, 역사와 역사교육, 41, 2020, 21-56.
- 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 資料館だより, 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70), 2022, 1-5.
- 許点淑, 오키나와 북부 모토부정의 전적지와 기억의 창조-전적지 투어가이드의 활동을 사례로-, 한국일본학회 제105회 국제학술대회, 2023.



문화를 통해 오키나와를 보다

오키나와 문화조사 보고서

류큐무라의 관광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에 대하여

김수연 / 한림대학교

1. 서론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많은 관광지 중 류큐무라^{琉球村}를 방문하였다. 직접 방문하기 전까지는 단순히 오키나와 이전 류큐국 때의 모습을 재현한 민속촌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한국의 민속촌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호기심에 흥미로웠다. 관광지는 직접 방문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볼거리와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는 법이다. 말이나 사진으로는 전해지지 않는 감동을 느끼기에는 두 발로 직접 방문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관광적 가치라 하면 그 관광지는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느냐이다. 가치가 작으면 인지도가 낮아지고 당연히 찾는 사람도 적을 것이며 점점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지

도가 높아지고 찾는 사람도 많아지며 소문도 평가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관광지는 단순 여행 이외에 교육적 가치, 역사적 가치, 상품이나 많은 다른 요소로 가치는 달라진다. 그런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의 류큐무라는 어떤 곳일까?

2. 류큐무라^{琉球村}

류큐무라는 1982년에 설립되고 오키나와현 구니가미군 온나촌 야마다 1130^{沖縄県国頭郡恩納村山田1130}에 있으며 입장료가 필요하다. 실내와 실외 둘 다 있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도 크게 받지 않고 즐길 수 있다. 류큐무라의 볼거리로는 에이사 공연과 물소, 구 시니가키타니가^麩를 비롯한 가옥이 있었고 즐길 거리로는 류큐 전통의상 체험, 보물 찾기, 탈출게임, 캔들 만들기와 같은 체험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많은 체험 거리는 대상이 어린이나 노인처럼 특정 나이대로 좁혀져 있지 않고 남녀노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 운영 시간은 9:30~17:00로 가볍게 즐기도록 되어 있다.

입장권을 사고 들어가면 먼저 보이는 곳은 실내로, 비가 왔을 때도 즐길 수 있게 체험 위주로 꾸려져 있었다. 류큐 전통의상을 입고 구경할 수 있도록 대여할 수 있는 곳이 가장 가까이 있고 그 이후로는 오키나와의 수호 동물 시사^{シサー}를 이용한 캔들, 스피커, 장식품을 기념품으로 만들 수 있는 체험이 눈에 띄었다. 다른 기념품으로는 오키나와의 대표 특산품인 진스코, 자색고구마타르트를 비롯한 과자부터 티셔츠, 젓가락, 입욕제와 같은 일상품도 많이 취급하고 있다. 또 가까운 위치에 주라우미수족관이 있어서 수족관이 생각나는 바다 모티브의

기념품과 티켓도 같이 팔고 있다.

실내에서 실외로 이동하면 바로 오키나와의 아열대 해양성기후에 맞춰 잘 자라는 식물들을 볼 수 있다. 구 시니가키타니가와 같은 가옥과 도자기 공방 같은 건물들이 보이고 류큐국 때 생가나 유형문화재로 등록된 민가와 염소, 물소도 구경할 수 있으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에이사 공연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민요와 다른 무용들을 관람할 수 있었다. 에이사라는 오키나와 무용을 살펴본다.

3. 에이사

1) 기원

에이사는 류큐의 전통 무용으로 오본에 선대에게 무병식재나 가내안전 등을 기원하며 공양하기 위해 젊은 남녀가 마을을 거닐며 추던 미치주네^{道ジュネ}라고 하는 것이 기원이라고 한다. 남녀 10여 명과 다이코라는 북을 포함해 20명 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흔히 아는 본오도리^{盆踊り}와 같은 개념이다. 처음에는 공양을 위해 했지만 전후^{戦後}에는 음악이나 춤, 역할이 자유롭고 종류가 폭넓게 변화한 창작 에이사를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오키나와 무용이지만 오키나와에 서만 하는 무용이 아니라 최근에는 신주쿠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공연도 많이 한다.

2) 종류

에이사에는 하타가시라^{旗頭}, 데우두이^{手踊り}, 지가타/지우테^{地方地謡}, 존다라^{京太郎}의 네 역할이 존재하며 각각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

타가시라는 3~4m 정도 되는 깃발을 들고 에이사를 추는 단체의 선두에 서서 깃발을 흔들며 춤을 추며 데우두이는 여성의 춤으로 남성의 크고 역동적인 춤에 비해 가련하고 부드럽게 손을 주로 쓰며 춘다. 지역에 따라서 유치다키와 같은 악기를 다루기도 한다. 지가타/지우테는 오키나와의 악기, 산신과 노래 역할을 맡는다. 존다라는 얼굴에 하얗게 화장을 하고 높은 가발을 쓰며 역동적으로 춤을 추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등 관객을 즐겁게 이끌어준다. 류큐무라의 에이사는 지가타/지우테와 데우두이와 다이코가 사용되었으며, 다른 무용과 전통적인 에이사보다는 현대의 창작 에이사의 공연으로 가볍게 즐기며 볼 수 있었다.

4. 관광적 가치

류큐무라는 볼 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았으며 화려하고 가짓수가 많은 기념품을 취급하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관광지이다. 한국의 민속촌과 비교해보았을 때도 비슷한 점이 많이 보였고 오키나와의 관광지라면 여기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름만 들어보고 직접 가본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키나와의 대표적 특징인 시사와 바다를 테마로 꾸밀 수 있는 장식품은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이라면 특히 인상 깊은 기념품으로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점에서 체험해보는 것을 추천하는 듯했다. 직접 만든 도자기 그릇이나 컵, 장식품을 판매하고 간단한 식사를 즐길 수

⑤ 데오도리, 교타로가 맞는 표기법이나 오키나와 방언의 발음으로 작성하였다.

있는 음식점도 있었다. 주로 덩고 습한 오키나와 날씨에 맞게 유명한 아이스크림 브랜드 'BLUE SEAL'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구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지금은 운영하지 않지만 음식점이나 다른 구경거리도 훨씬 많았다.

확실히 즐길 거리는 다른 테마파크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훌륭하고 남녀노소, 타지의 관광객들도 즐길 수 있게 되어 있었지만 무엇인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5. 교육적 가치

류큐무라는 단순히 구경거리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요소도 있다. 이름도 류큐무라이고 그 당시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산신 연주와 산핀차와 가옥들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역사, 문화 교육으로는 가장 와닿을 수 있는 요소이다. 또한 산신 연주를 배울 수 있는 수업도 준비되어 있고 식물도 오키나와라는 지역을 가깝게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는 공부가 되지 않는다. 각 건물이나 물건 앞의 설명은 이해하기 부족한 면이 보였고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마을을 걷다 보면 사탄안다기와 산핀차를 주는 주막이 있다. 점원과 이야기를 하며 오키나와 방언과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6. 결론

‘류큐무라의 관광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류큐무라의 관광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의 정도성과 발전성을 생각하였다. 류큐무라는 오키나와라는 지역을 알면서 같이 알아가고 공부하는 관광지로 뛰어난 장소이다. 교육만이나 관광만을 목적으로 세워지지 않았고 누구나 즐기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이다. 민속촌의 특성상 한 가치만 챙기기에는 불리하다. 그러나 관광으로도 교육적으로도 가치를 챙기기엔 두 요소 다 평범하다는 평이 있었다. 그렇다면 직접 경험해보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실제로 눈으로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아쉽다고 느낀 것은 이야기가 없어서라고 생각한다. 가옥을 구경할 때 이 가옥이 무엇을 의미하고 누가 살았는지는 글로 알 수 있지만 뼈밖에 없는 것과 같았다.

이야기는 그 뼈에 살을 붙여준다. 실내의 체험 코너는 적막하였고 조용한 분위기에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이 들었다. 실외는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구경거리가 아니라 그저 세워져 있는 건물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것으로는 교육이나 관광으로도 부적절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관광지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사람과 사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문화, 교육 모든 것에 해당한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더 나은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은 커뮤니케이션과 교류에 있다고 생각한다.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앞으로는 더 넓고 열려 있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나’라는 존재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고 세상이 있기에 더 배우고 나아가기에는 많은 교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류큐무라공식홈페이지. (검색일: 2023 .07. 25.). <https://www.ryukyumura.co.jp/>
「沖繩の伝統芸能エイサー について」, 신주쿠에이사. (검색일: 2023. 07. 25.). <https://shinjuku-eisa.com/about/index.html>
- 박흥일, 오키나와 민속예능 「에이사(エイサー)」의 변천과정과 지역활성화, 한국일본어문학회, 2005.
- 진필수, 오키나와(沖繩)의 전통예능 활성화와 소수민족 정체성의 행방: 에이사(エイサー)의 사례, 한국인류문학학회, 2010.

류큐무라를 통해 바라보는 종교적 문화와 현대로 이어지고 있는 에이사

김지연 / 한림대학교

1. 서론

오키나와의 역사를 알아보던 중 옛 마을의 형태가 재현되어 있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다. 류큐는 다른 국가의 다양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문화양식을 만들어나갔다. 그 문화는 여전히 잘 보존되어 있으며, 에이사의 경우 현대에 맞추어 이어지고 있다. 현대로 이어지고 있는 류큐를 역사-문화 면에서 넓게 관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선정하였다.

2. 본론

첫 번째로는 '류큐무라를 통해 바라보는 종교적 문화'이다. 여

기에는 크게 시사상과 기지무나^{キシムナー}가 있다.

크기도 형태도 모두 조금씩 다른 시사^{シーサー}는 류큐무라 초입부터 안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의 도입과정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지만, 초기 류큐국의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던 것이 17세기 말 마을로 확산되었다고 한다. 마을을 나쁜 기운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입구에 설치하거나 재액을 막고 종교적 의례를 행할 때 신의 영역을 경계 짓는 기능으로 설치되었다. 그 증거로 류큐무라의 옛 민가 근처 혹은 입구, 이동하는 길목 등 여러 곳에서 시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쁜 기운을 막거나 신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부분^㉞은 자연재해가 빈번했던 오키나와에서 마을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된다.

기지무나는 나무의 정령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의 요괴이다. 신격화된 정령으로 종교적인 문화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류큐무라 안에 있는 조각상과 설명에서 외관의 모습과 각 신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관찰했다. ‘언제나 낭만을 추구하는 장난꾸러기’, ‘희몽^{喜夢}’, ‘순수한 감정의 소유자 앞에 출현’ 등이 적힌 팻말은 긍정적인 기운을 내포하고 있었다. 기지무나는 집 근처 나무에 서식하며 집안의 흥망성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정령이라고 한다. 여러 사례에서 ‘언제 인간에게 위해를 가할지 모르는 부정적 존재’로 인식되었다는 해석을 확인하였다. 그런데도 현지에서 본 기지무나의 이미지는 위해를 가하고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보기 어려웠다. 기지무나는 자연의 영역에 속하는 요괴로, 신격에 대한 경외심과 동시에 자연에 대한 경외심으로 바라보

㉞ 주거지 이외의 산이나 들판을 신의 영역으로 생각했다. 그 경계로 인식되는 곳에 시사를 설치했다.

는 존재라고 한다. 자연이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류큐인들의 종교적 경외심은 오늘날에 이르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비추어진 것이 아닌가 짐작해본다.

두 번째로는 ‘현대로 이어지고 있는 에이사’이다. 에이사가 현대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현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고 진행하였다. 공연은 류큐무라와 숙박하고 있는 호텔 총 두 곳에서 관람하였다. 에이사는 오키나와의 본⁷에 관한 전통 행사 중 하나로 조상의 영을 위로하는 행사였다. 조상신을 공양하고 마을 사람들을 결속하는 의례라는 것이다. 이는 류큐국 마쓰리다이코를 시작으로 많은 전문 에이사단이 등장하면서 점차 오키나와가 발신·주도하는 예능 형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류큐무라에서는 나무로 만든 창과 손 도구, 북을 사용한 춤을 볼 수 있었다. 노래를 비롯한 하야시⁷, 휘파람 등의 소리와 박력 있는 동작으로 구성된 공연에서 민속 예능의 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다. 정해진 시간에 공연하고 사진을 찍는 것은 ‘오키나와의 이국적 느낌과 정겨운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에 동의할 수 있는 퍼포먼스였다. 또한 에이사는 전문 에이사단을 통해 지역적으로 확대되고 일상화되었다. 최근에는 결혼식이나 회사의 축하 기념행사 등 축하하고 싶은 행사가 있을 때 에이사를 추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호텔 내에서 회사의 축하 기념 공연을 관람하게 되었다. 새로웠던 것은 음악이 류큐무라 공연 때와 달랐다는 점이다. 하야시나 휘파람, 북과 함께 진행되는 동작들은 동일했으나, 실제 연

⑦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은 소리나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떠들썩한 분위기를 내는 것.

주와 함께하는 노래도 아닐뿐더러 새로운 멜로디였다고 느껴지는 음악이었다. 또한 사자무도 관람하며 시사를 일반적으로 사자라고 인식한다는 점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얼굴 생김새가 시사와 더 닮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었다.

3. 결론

이번 현지 교육에서 류큐국의 종교적·예술적 문화를 확인하였다. 시사상과 기지무나를 바라보며, 과거 빈번했던 자연재해와 새로운 풍수 관념 보급 등의 이유로 삶에 종교적 의미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일본에는 수많은 신과 신사가 존재한다. ‘류큐’라는 독자적인 나라였던 오키나와에는 그들만의 종교가 있었다. 일본 본토와 종교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지도 조사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에이사 또한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한다. 조상신의 공양을 위해 행해졌던 의례는 현대에 와서 오키나와만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통예술로도 계승되며 관광 이벤트화되기도 한 에이사는 향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계속 이어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류큐의 문화를 관찰한 기회였다.

참고문헌

- 이성혜, 오키나와의 상징인 시사(シ-サー)의 正體에 대하여, 동양한문학회, 2020.
- 김창민, 오키나와의 시사(シ-サー, 獅子)와 문화적 정체성 만들기,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6.
- 김용의, 오키나와의 요괴 기지무나의 다중적 성격 양상, 한국일본문화학회, 2015.
- 진필수, 오키나와(沖繩)의 전통예능 활성화와 소수민족 정체성의 행방: 에이사(エイサー)의 사례, 한국문화인류학회, 2010.
- 박흥일, 오키나와 민속예능 에이사(エイサー)의 변천: 에이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광주: 全南大學校 大學院, 2004.

오키나와 다크 투어리즘 장소의 다양화를 위한 접근성이 낮은 곳의 개선 방안 제시

김혜진 / 한림대학교

1. 조사 목적

본 보고서에서는 다크 투어리즘을 위해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조사 중인 또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이라 정보가 적은 전적지^{戦跡地}, 전적기념관 등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2. 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의 필요성

본 보고서는 ‘健壁花壇(켄켄화단)’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따로 공식 관리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검색해도 정확한 위치 정보를 알 수 없다. 셋째, 공식 가이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키나와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내에서 유일

하게 지상전을 치른 곳으로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개중에는 관리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설 단체가 후원해 희생자들을 기리는 곳이 있는 반면에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조사했음에도 그 결과가 미미하여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풍화되고 있는 곳도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후자에 주목하여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해당 장소들이 알려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 잊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지속적인 관심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끔 해야 하는데, 현재의 상태(관리 시설 부재, 검색 결과 부족 등)로는 그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후술될 조사 방법에도 나와 있듯, 프로그램을 통해 갈 수 있는 전적지 중 조사 목적에 걸맞은 곳이 위에서 말한 두 곳이었기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조사 방법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에서 주최한 ‘대학생을 위한 포문동 해외현지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오키나와를 방문, 가이드 투어 중 ‘겐켄화단’을 방문한다. 해당 장소들을 직접 가보고 지리적 접근 방법,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 등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 모색한다.

4. 겐켄화단

1) 현황

1945년 5월 미국 잡지 <라이프^{Life}>에 게재된 사진으로 그 희생

자의 묘표^{墓標}가 처음 공개되었고 2020년 2월, 유골 발굴 작업을 실시했으나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이후 2021년 4월, '겐켄의 유골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자회(健堅の遺骨を故に帰す会)'가 유골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곳의 절벽 아래에 희생자를 기리는 무궁화와 히비스커스 등을 심어 화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겐켄화단'이다.

2) 위치 및 접근성 분석

겐켄화단은 오키나와현 구니가미군 모토부정 겐켄의 바닷가에 있다. 시설은 화단과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비석 대신 큰 돌 14개가 전부이다. 찾아가는 길은 어렵지 않으나 그 정확한 위치를 알 방법이 적어 찾기가 쉽지 않다. 구글 검색 시 나오는 정보의 수가 약 30만 건으로 적을 뿐 아니라 그중 극히 일부만이 찾고자 하는 겐켄화단에 대한 정보이다.



겐켄화단의 위치를 표시한 구글 위성 사진

5. ‘겐켄화단’ 접근성 개선 방안 제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화된 오늘날에는 가장 먼저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정보를 얻으려고 시도하므로, 유의미한 검색 결과를 바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적지 투어 사이트’ 개설을 제안한다. 일반 관광과는 다르게 어두운 면이 부각되는 전적지 투어를 위한 전용 사이트로, 방문할 수 있는 전적지 리스트를 담아 그곳의 위치와 상세 정보를 게시한다.

이때 내용을 사이트 이용자가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전적지 추가를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용자의 수정 사항을 사이트 관리자가 승인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혹은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게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부가 기능으로는 가이드 투어 신청 기능이 있으면 좋다. 전적지 관련 전문가와 협업해 일반인들에게 질 높은 정보 습득 기회를 늘리면 전적지 투어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오키나와 전적지 중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은 곳이어도 찾아갈 수 있도록 기회의 창을 넓히기 위해 ‘겐켄화단’을 조사하고 분석했다. 현재는 지도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인터넷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기사와 게시글도 몇 건 없는 겐켄화단과 비슷한

① 2023년 12월 기준, 구글맵에 필자가 등록한 겐켄화단 위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사례, 그 외의 전적지를 한데 모아 ‘전적지 투어 사이트’ 개설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許点淑, 오키나와 북부 모토부정의 전적지와 기억의 창조—전적지 투어가이드의 활동을 사례로—, 한국일본학회 제105회 국제학술대회, 2023.
- “징용피해 故 김만두·명장모 유해 나올까…75년 만에 발굴”. 연합뉴스. (검색일: 2023. 07. 27.).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9028400073>
- “沖繩の友人より(120)南部地区の土砂を埋め立てに使うな！全県に広がる声”, 呆け天 残日録. (검색일: 2023. 07. 27.). <https://boketen.seesaa.net/article/480926367.html>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생활양식에 대한 비교

박종후 / 한림대학교

1. 주제 선정

나는 대학 생활에서 느끼고 배운 것이 누구보다 많다고 자부할 수 있다. 대학교는 나에게 새로운 꿈을 그릴 수 있게 해주었고, 작은 꿈부터 하나하나 실현하며 지금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기에 대학교는 나에게 2021년 입학과 동시에 3학년 1학기를 마친 지금도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에서 포문동이라는 기회로 오키나와 메이오대학의 학생들과 2022년 8월 온라인으로 교류회를 진행한 적이 있다. 나는 연구보조원으로 일본의 대학생들에게 나의 대학 생활을 알리고 싶어 교류회에 지원했고, 오키나와의 현민성과 대학 생활에 관해서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던 중 올해 수업의 일환으로 우연찮게 메이오대학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를 또

갖게 되었다. 두 번째 만나는 학생도 있어 정말 반가웠다. 교류가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현지교육 소식이 들려왔다.

오키나와 현지교육에서 일본 대학생들과 온라인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어서 아쉬웠으나 직접 마주 보며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현지교육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나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을 조사해보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다. 작게는 생활양식부터 인식 차이까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르고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서로 닮은 부분은 어떻게 닮았는지 중점적으로 주제로 삼아 교류에 응하게 되었다.

일본에 도착하고 첫날은 역사유적지를 방문하며 저마다 다음 날 예정되어 있는 학생들을 만날 준비를 했다. 그리고 가장 고대하고 기다리던 둘째 날의 아침이 밝았다. 한림대학교 학생들은 메이오대학을 향해 가고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보인 것은 메이오대학의 운동장이었다. 한림대학교 운동장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였으나 2배 정도 넓어 인상 깊었기에 가장 먼저 떠오른다. 학생들과 조를 편성해 본격적으로 교류하는 시간을 내기로 하였다. 소모임으로 진행하는 교류였기에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였으나 이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학생들을 만나기 전, 한국에서부터 물어보고 싶던 질문들을 준비해 교류회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인지, 꿈에 그리던 일본 대학생들과 교류한다는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교류를 시작했다.

2. 한일 대학생 비교 분석

나는 일본 대학생들에게 ‘한국과 일본 대학생 중 가장 크게 다

르다고 생각하는 부분, 알고 싶던 부분'을 질문으로 선정했다.

- 1) 한국은 학번으로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비해 일본은 학년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고 알고 있다. 학번으로 소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나 나이를 말하며 소개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가요?
- 2) 한국의 대학생들은 휴학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일본 대학생들은 휴학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한국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거나 인턴십을 하는데 일본은 취업 내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휴학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3) 휴학과 연관된 질문으로, 한국의 학생들은 어학연수를 많이 가지만 일본은 어학연수 가는 학생의 비율이 낮은데, 이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가장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질문으로 준비해갔다. 이에 대한 답변들을 교류회에서 모두 들을 수 있었다.

3. 교류회를 통해 마음의 거리를 좁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일본 학생들의 답으로는 '서로가 편안한 분위기를 중시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학번이 다르더라도 학교에서 만나면 반말로 대해주는 것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친숙함을 주기 때문에 반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기쁘고, 경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편하게 반말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굳이 나이와 학번을 묻지 않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나이를 알게

되면 거리감이 느껴지고 이에 따른 불편함이 수반되기 때문에 구태여 묻지 않는다고 답변해주었다.

학번, 나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친하게 지내던 학교 친구의 나이를 어느 날 알게 되었는데, 자기보다 3살 위였다고 한다. 그것을 알게 된 후 좀 어색한 느낌도 들고 거리감도 느껴졌으나, 3살 위의 친구가 전처럼 반말로 이야기해달라며 자신을 편하게 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며, 그 편이 자신도 기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렇게 일본은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고 알려주었다.

나도 메이오대학의 학생들과 마지막 날 서로 나이를 알게 되었다. 나는 1994년생으로 28살에 대학에 입학했다. 올해 만 나이로 29살인데, 이것을 일본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그동안 나이도 모른 채 너무 편하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도 위의 이야기를 들어 그렇지만 “여태껏 그랬던 것처럼 편하게 이야기해주고 대해주면 기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서로 모두 웃으며 이야기를 마쳤다.

한국은 첫 만남에서 나이나 대학교라면 학번을 묻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그것을 잊은 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번 교류에서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었다. 우리 마음을 막는 것은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 질문은 휴학과 취업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일본의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걱정 없이 취업 내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일본 대학생들과 교류를 시작하자마자 이런 나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내 옆에 앉게 된 4학년의 한 학생은 오늘 원래 취업 시험이 예정되어 있어 불참할 수밖에 없었는데, 날짜가 어제

로 변경된 덕에 어제 시험을 치르고 참가할 수 있었다며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기쁘다는 이야기를 해준 덕에 내 예상이 빗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일본의 대학생이라면 모두가 쉽게 취업 내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은 지금 구인난이라는 기사와 뉴스를 여러 번 보았기에 그랬을지도 모르고, 취업 내정이 보편적인 제도라고 생각했기에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일본의 대학생들도 한국의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취업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덜 치열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교류를 통해 원하는 회사나 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취업의 문턱이 높아 모두 치열하게 힘을 쓰고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세 번째는 휴학과 어학연수에 관한 질문이었다. 우리와 교류한 학생들은 모두 글로벌 학부 소속이었다. 그렇기에 다른 학과보다 휴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조금 높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글로벌 학부임에도 다른 나라 학생들과 팬데믹 상황에서는 좀처럼 교류할 수 없었고, 원하는 나라로 나가지 못했기에 교류나 교환학생을 위해 휴학하는 경우가 코로나 전보다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하지만 일본의 학생들은 휴학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부모님이 말리거나 확실하게 무엇을 할지 정한 뒤 휴학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며 그런 경우가 아니면 휴학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라고 했다.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내 생활반경과 멀어지고 싶지 않기에 일본 학생들은 어학연수와 같은 교환학생 제도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편이라고 했다. 2학년의 한 학생은 부모님이나 고향과 멀어지고 싶지 않아 교환학생을 포기하였다. 4학년의 한 학생은 영어를 배우고자 했으

나 부모님이 영어권 나라는 너무 멀어 반대했고, 꼭 다른 나라에서 배우고자 한다면 동아시아권으로 제한해 결국 교환학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렇듯 자신이 영위하는 생활반경과 멀리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성향과 부모님의 반대로 일본은 어학연수, 교환학생을 가는 학생들의 비율이 낮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더불어 연관되는 주제로 진로와 아르바이트 이야기도 할 수 있었다. 메이오대학의 학생들은 모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오키나와는 관광지라는 말을 덧붙이며,接客업을 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라는 말을 해주었다. 한국어로는 서비스업이라면서 호텔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으며, 자신도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과 같은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보통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학생은接客업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현실적인 고민을 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호텔에서接客을 하지만 장래 이길로 나아가기에 서비스업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취업을 생각해 야 하는 4학년인데接客으로는 나가고 싶지 않지만, 관광지인 오키나와에서는接客업과 같은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기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거나 이도 아니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어 당장 내년 취업을 앞둔 상황에서 고민이라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참으로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적성과는 맞지 않아接客업을 하고 싶지 않으나 오키나와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국내는 물론 해외 손님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에接客업이 맞지 않으면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에 이 학생은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준비하며 앞날을 모색하고 있었다. 나도 아직 적성을

찾는 중이고, 한림대학교는 내게 4번째 대학이라며 적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이야기하며 서로 진로 이야기를 꽃피울 수 있었다.

교류에서 대학교 학사제도의 차이 또한 알게 되었다. 가장 크게 다르다고 느꼈던 것은 학점, 성적 부분이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평점으로 평가하는 만점제를 시행하는데, 가장 높은 성적인 A+는 4.5, 그 아래로 0.5점씩 낮아지며 성적을 받는다. A, B, C 등급별로도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다. 메이오대학의 학사제도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과 정반대였다. 秀, 優, 良, 可, 不可 순으로 중·고등학교처럼 성적을 매긴다고 하였다.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비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가장 잘 해서 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교수자가 세운 기준을 통과하고 만족했다고 생각하면 秀를 받는 경우도 흔하다고 하였다. 비율이 존재하지 않기에 기준점만 만족하면 秀를 받을 수 있다며, 한국은 비율이 존재하기에 아무래도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성적 때문에 동기, 친구와도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일을 여러 번 보았고, 나 스스로도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기에 나도 모르게 왠지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성적 이야기를 한 후 졸업 요건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메이오대학의 학생들은 졸업을 하려면 '졸업 논문'이 필수적인 것 같았다. 줄여서 흔히 '졸논^{卒論} 소쓰론'이라고 한다.

올해 4학년인 학생도 졸업 논문으로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으며, 3학년인 학생들 모두 내년엔 소쓰론, 졸논을 써야 한다며 각자 저마다 두려움을 나타냈다. 우리는 일본학과이기에 어학성적 기준을 넘으면 졸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주었더니, 놀란 눈으로 우리에게

게 졸업 논문은 없냐고 물었다. 성적과 평가 이야기를 듣고 내가 부러워했던 것처럼 메이오 학생들이 우리의 졸업 요건을 듣더니 너무 부러워했다. 졸업 논문은 우리 학과의 경우 과거엔 있었지만 사라졌고, 다른 학과도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고 답하자 역시 또 놀랐다.

졸업 논문의 최소 글자 수는 1만 자로, 글자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을 배정받고 주제를 정하고 수정하고 완성하는 과정이 압박으로 다가온다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일본의 전문대학에 속하는 단기대학도 졸업 논문이 필수이며, 메이오대학 내에서도 간혹 졸업 논문이 없는 학과가 있지만 그 학과가 특이한 것이라며 일본의 대학에서 졸업 논문은 ‘없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졸업 논문은 당연한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압박도 많이 받기에 졸업 논문에 빠르게 착수하는 학생들은 3학년 과정을 마치자마자 논문을 쓰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대체로 4학년 들어가며 모두 주제를 정하고 교수님을 배정받아 본격적인 논문 작성에 돌입한다며 벌써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4. 오키나와는 어떤 곳?

이렇게 한국과 일본 대학생을 비교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진 후, 타지 사람이 보는 오키나와에 대한 인상과 느낌, 그리고 본토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했던 터라 타지에서 오키나와의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다.

일본 내에서 오키나와는 ‘특별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았다. 미군이 오랜 시간 주둔한 탓인지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

다는 것과 국제적인 분위기라고 본토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다며, 확실히 본토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규슈에서 메이오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미군기지가 있는 만큼 비행기 소리가 엄청나게 들려와 오키나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무서움을 느꼈다고 한다. 자신이 느낀 일로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외국인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그로써 외국어를 접하며 외국어 실력이 향상되었다며 자기 고향에서는 외국 사람을 많이 접할 일이 없었는데, 오키나와에 온 후로는 외국인들을 접할 기회가 많이 늘어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키나와에서 나고 자란 학생에게도 물어보았는데, 그는 오키나와를 본토와는 ‘すべてが少し違う(모든 부분에 걸쳐 조금씩 다르다)’라고 했다.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일본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바꿔말하면 ‘모든 부분에 걸쳐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다. 이처럼 이번 현지교육에서 본토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타지에서 온 학생에게 가장 다른 부분이 있었냐는 질문을 했는데 오키나와 사람들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좀 여유로운 편이라며, ‘ウチナータイム(우치나 타임)’이 가장 다른 부분이라고 느꼈다고 했다. 우치나는 오키나와를 뜻하는 오키나와의 고유 언어(류큐어)로 ‘오키나와만의 시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타지에서 온 자신은 서두르거나 시간에 맞게 약속 장소에 도착해도 오키나와 사람들은 정말로 단 한 번도 시간을 지킨 적이 없어 처음에는 적응되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 우리가 교류회를 할 때 ‘우치나 타임’을 경험한 적이 있다. 수업을 마치는 종이 울려 교류가 끝났는데도 교수님이 오지 않아 모두 우왕좌왕 당황할 때였다. 뒤늦게 도착한 교수님이 학생들을 부르기는커녕, 수업을 마치는 인사말 같은 것도 하

지 않고 그냥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우리와 함께 교류한 학생이 내게 “우리 교수님은 항상 느긋하게 생각하세요. 시간도 종종 못 지키시고요”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가 “혹시 이게 우치나 타임인가요?”라고 묻자 맞다면서 우치나 타임을 실제로 보게 되었다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시간 개념에 여유 있는 오키나와의 일면을 실제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오키나와는 습도가 정말로 높은 편으로 나무식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난 부분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나무그릇, 나무수저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오키나와는 습도가 본토에 비해 확연히 높기에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바로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식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후가 생활양식을 바꾼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다. 한림대 학생들 모두 공항에서 내려 오키나와의 기후를 접하자마자 “공기 중에 물이 떠다니는 것 같아”라며 모두 놀랐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이런 기후에 본토 출신 학생과 외지 출신 학생에게 적응되었는지 물어보자 다른 것은 다 적응해도 오키나와의 더운 날씨와 습도만큼은 절대로 적응이 안 된다며 4학년이나 지난 지금도 힘들다고 했다.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기후만이 아니었다. 오키나와의 대학생들은 모두 차차, 즉 자신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오키나와는 간단한 식료품을 살 수 있는 가게나 편의점, 술을 마실 수 있는 주점이 모두 학교와는 거리가 있는 편이라고 한다. 그리고 교통편이 불편하다고 했다. 버스의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 교통편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 오키나와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메이오대학의 주차장에 차가 정말 많아서 ‘무슨 차가 이렇게 많

을까'라고 생각했으나 모두 학생들의 차라고 한다.

이렇듯 이번 현지교육에서 직접 일본의 대학생들과 만나 이야기하며 한국의 학생들과도 다르고 본토와 비교해도 다른 오키나와 대학생들의 모습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대학생이라면 각국 어디를 가더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학생들과 이야기하면 할수록 어딘가 닮았으면서도 다른 모습을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꿈에 그리던 일본 학생들과의 교류였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던 교류 때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 하고 싶은 말들을 메이오의 학생들이 편만한 분위기를 조성해주어 내 생각과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고 이야기하는 법을 깨닫고 배웠다.

아무래도 처음 일본 학생들과 만나는 자리이니만큼 긴장도 되고, 익숙하지 않은 기회라 처음엔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일본 학생들과 만나는 것은 나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배울 것은 열심히 배우고 받아들이지는 생각으로 참여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기에 일본 학생들과 만날 수 있었던 일정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 돌이켜보면 그 점이 가장 아쉽고, 나중에 헤어질 때는 눈물을 흘리는 일본 학생들도 있었다. 짧은 시간에 정말로 정이 많이 들었고 모두와 친구가 된 시간이었다. 다음을 기약하며 인사를 나눴는데 우리에게 정말 다음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모두와 다시 함께 만나는 날이 오기를.

오키나와 역사문화관광의 콘텐츠 및 발전 가능성 탐구

신현주 / 한림대학교

1. 서론

오키나와는 옛 류큐국이었으며, 일본 본토와 다른 국가로 분리되어 있었다. 명나라와 뒤를 이은 청나라, 일본, 조선 등과 교류하였으며 근세에 들어서는 네덜란드 등과도 교류하며 해양 문화를 꽃피웠다. 메이지유신 이후 팽창주의 정책을 추진한 일본은 1879년 류큐국을 폐지하고 오키나와현으로 편입하였다. 이후 일본군의 군사기지로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태평양전쟁 당시 오키나와 전투 와중에 수많은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다. 특히 일본군은 이른바 옥쇄를 강요하면서 주민들에게 자결을 강요하였고, 전황이 극에 달했을 때는 학살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전쟁 이후 미군은 오키나와에서 군정 통치를 하였고 1972년 오키나와 반환으로 다시 일본 정부 관할이 되었다. 전쟁 이후 오키

나와의 주일 미군은 늘 지역사회의 문제였고, 미군 철수를 원하는 지역 여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오키나와의 역사문화관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그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장소는 2023년 7월 오키나와 현지교육 기간 때 방문한 곳으로 구 해군사령부호, 히메유리탑을 선정했다.

2. 구 해군사령부호

오키나와현 도미구스쿠시 도미구스쿠 236번지에 있으며, 나하공항에서 자동차로 15분 정도 거리이다. 1944년 태평양 전쟁 중에 오로쿠비행장을 지키기 위해 비행장을 남동쪽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에 해군사령부 방공호를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 해군 부대가 파낸 길쭉한 땅굴을 콘크리트와 통나무로 고정해 만든 방공호는 당시 전장 450m였다고 한다. 미군의 함포사격을 견디고 지구전을 계속하기 위한 지하 방공호로 병사 4,000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그러나 1945년 6월, 방공호가 있는 나하시 남서부는 미군에 포위됨으로써 사령부는 자결하고, 오로쿠지구에서 조직적인 전투는 종결되었다. 방공호는 전후에 잠시 방치되어 있었으나, 수차례에 걸친 유골 수집 후 1970년, 관광 개발 사업단에 의해 사령관실을 중심으로 300m가 복원되었다. 공원식지 내에서는 1층은 자료관, 2층은 오키나와 전투 사진전을 볼 수 있으며 총기와 군복 등 방공호^壕 내에서 발굴된 유품과 가족에게 남긴 편지 등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최종 접수는 4시 반이다. 입장료는 보통 대인 600엔, 소

인 300엔이지만, 금액을 추가하면 가이드북과 메시지 카드 옵션을 받을 수 있다. 단체 프로그램은 총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① **미니 강연(20명 이상)** 구 해군사령부호에 도착한 후 위령지탑 앞에서 10분 정도 미니 강연을 실시한다. 오키나와 전투나 해군사령부호의 건설 경위, 전쟁의 비참함, 평화의 존중에 대해 설명한다.
- ② **평화 가이드(19명 이하)** 구 해군사령부호의 위령지탑과 사진전, 자료관, 부호를 전속 가이드 1명이 설명을 섞으면서 50분 정도 함께 관람한다. 금요일 한정으로 선착순 19명이기 때문에 다른 손님과 함께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구 해군사령부호 옆에는 해군호공원이 있다. 나하시 남서쪽의 도미구성 구릉에 있어 동중국해, 나하 시가지, 슈리성을 전망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 해군사령부호가 놓여 격렬한 전장이 되었다. 현재는 오키나와에서 세계를 향한 평화를 발신하는 전적 공원으로 정비되어 교류나 휴식의 장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히메유리탑

오키나와현 이토만시 이하라 671-1에 있다. 히메유리의 탑은 오키나와 전투에서 숨진 히메유리 학도와 교사를 위해 건립된 위령비이다. 오키나와 전투가 종결된 것으로 알려진 6월 23일 위령의 날에는 매년 위령제가 열린다. 탑 공원 부지 내에 있는 히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은 1989년 히메유리 동창회에서 히메유리의 탑 옆에 설립했다. 민

간 설립의 자료관으로, 설립 자금으로 많은 기부를 받았으며 개관 후에도 입장료와 간행물로 운영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25분까지 개관하며, 입장 접수는 오후 5시까지이다. 성인은 450엔, 고등학생은 250엔, 초·중학생은 150엔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자료관 내에는 증언 영상이나 당시의 사진, 호수의 실물 모형 등으로 히메유리 학도대가 체험한 오키나와 전투의 실상을 전하고 있다. 총 6가지 전시관으로 나뉘어 있다.

- ① **히메유리의 학교** 오키나와 전투가 시작되기 전 히메유리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전쟁 중 사회에서 자라 당시 교육을 통해 군국소녀로 자란 흔적을 전시하고 있다.
- ② **히메유리의 전장** 오키나와 전투가 시작되자 히메유리의 학생들이 오키나와 육군병원에 동원되어 활동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 ③ **히메유리의 증언 영상** 오키나와 전투에서 살아남은 학생들의 증언 영상이 재생되며, 60~70대가 된 히메유리 학생들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겪은 일들을 말한다.
- ④ **진혼** 오키나와 전투에서 숨진 학생과 교사 227명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고, 오키나와 전투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한 대형 증언본과 오키나와 육군병원이었던 이하라 제3외과호 모형으로 전장이 전시되어 있다.
- ⑤ **히메유리 전후** 살아남은 히메유리 학생들의 행보를 소개하며, 오키나와 전투 체험을 말하지 못한 오랜 시간을 거쳐 히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 건립에 나선다.
- ⑥ **평화를 향한 광장&기획전시실** 다음 세대가 평화를 이야기하는 자리로 2004년 4월에 증설했다. 히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을 둘러보고 난 후

감상문을 쓰는 자리가 배치되어 있다.

히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은 단체관람을 대상으로 한 평화 학습 프로그램 또한 제공하는데,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① **평화강연(40분)** 히메유리 학도대의 체험을 중심으로 오키나와 전투에 대한 강연을 실시한다. 줌^{ZOOM}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 ② **비디오 시청 (24~33분)** 증언 비디오인 <평화의 기도-히메유리 학도의 증언>이나 <1994년-애니메이션 히메유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다.
- ③ **비디오 시청+토크(②의 영상 상영 시간+10~15분)**
영상 상영에 더해 시설의 직원이 영상에 관련된 에피소드 등을 이야기하며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4. 콘텐츠 및 발전 가능성 분석

두 곳 모두 역사적인 자료를 전시하고 이에 대한 영상 콘텐츠 제공이나 강연, 가이드 안내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어, 영어로 내용을 설명한다. 입장료뿐만 아니라 간행물이나 단체 교육 프로그램의 비용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내부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약천후가 있어도 관람할 수 있고, 오키나와의 나하공항과도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교통편도 문제가 없다. 오키나와 전투 당시 겪은 역사적 사실을 전시하여 이에 대한 평화 교육으로 현시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평화 의식을 실현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끌어

을 수 있다. 또한 해군호공원을 통해 휴식처로 거리감을 낮춰주며, 근처에 있는 구 해군사령부호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줄 수 있다.

두 곳은 민간단체의 재단으로 운영되며 오키나와현이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온라인 가이드 교육을 국내의 교육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퍼뜨려야 한다. 주로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조사해 그 나라 언어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외국인들에게도 오키나와의 역사를 교육한다면 이 두 곳의 관심도는 높아질 것이다.

참고문헌

- ひめゆりの塔・ひめゆり平和祈念資料館. (검색일: 2023. 07. 25.). <https://www.himeyuri.or.jp/info/>
- <https://okinawatravelinfo.com/ko/sightseeing/himeyuri-no-tou/>
- 나하시 관광 안내소, 구 해군사령부호(旧海軍司令部壕). (검색일: 2023. 07. 25.). <https://www.naha-navi.or.jp/ko/sightseeing/navybunker/>
- <https://okinawatravelinfo.com/ko/sightseeing/kaigungou/>

다양한 문화가 섞인 오키나와(류큐) 문화와 역사적 배경

여현정 / 한림대학교

1. 오키나와와 미국 문화

오키나와 현지조사를 하면서 오키나와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일본인데도 일본 문화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점이 신기했다. 오키나와 거리의 건물이나 분위기를 보았을 때 미국의 하와이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오키나와와 하와이는 같은 아열대 기후로 일본이 패전한 후 미국이 오키나와를 직접 통치하는 과정에서 미국 문화가 오키나와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일본 최대 미군기지(일본 내 미군 기지의 약 70%)가 여기에 존속하고 있다. 메이오대학 학생의 말에 따르면, 미군기지 주변은 위험한 편이고 소음 피해도 크다고 한다. 그럼에도 미군 비행장에서 쓰던 부지를 반환받아 만든 ‘아메리칸 빌리지’는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관광명소 중 하나가

되었다. 생각의 전환으로 문제와 논란의 미군기지를 관광지로 만들어 성공시킨 오키나와의 전략이 인상 깊었다. 오키나와 내 미군기지 문제를 모르는 관광객들도 아메리칸 빌리지를 방문하면서 오키나와에 왜 미국 마을이 있는지 궁금증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이로써 마을이 생겨난 배경을 알고 역사를 배울 수 있다. 또한 문화까지 즐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나 역시 현지조사 계획을 세워 조사하는 과정에서 역사를 배울 수 있었다.

2. 다문화적 성격의 류큐 문화

‘류큐무라’와 다양한 곳에서 오키나와의 옛 문화를 볼 수 있었다. 본래 오키나와는 ‘류큐’라는 이름으로 독립된 왕국이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류큐는 오키나와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병합되었다. 과거 류큐는 독립국가로 일본 본토와는 다른 문화가 있는데, 이러한 문화는 ‘류큐무라^{琉球村}’에서 접할 수 있었다. 류큐무라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류큐의 전통춤을 추는 예술인의 복장이 삼국시대 의복과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삼국시대에 유행했다는 주름치마를 류큐 예술인의 복장에서 볼 수 있었다. 동아시아 문화의 영향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류큐무라 외에 ‘사자춤’을 볼 기회도 있었는데, 중국과 한국의 ‘사자탈춤’이 떠올랐다. 자료를 조사해보니 사자탈춤은 인도나 서역에서 전래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한다. 사자탈춤은 서역에서 동아시아, 류큐까지 전래되어 각각의 현지 문화로 발전된 독특한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류큐는 과거 여러 국가와 외교를 하며 무역 국가로 번영했

다. 따라서 문화 역시 다양한 국가에서 들여와 그들만의 문화로 발전해 온 다문화적 성격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3. 정리하며

현지조사에서 오키나와가 여러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이라는 느낌보다는 독립적이고 특색 있는 섬이라는 느낌이 더 강했다. 과거 류큐국뿐만 아니라 현대 오키나와에서도 여러 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지금은 세계가 글로벌화하면서 오키나와에도 다양한 문화가 전래되고 있지만, 오키나와는 예부터 외국과 교류가 활발했으며, 이때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 오키나와만의 문화로 발전시켜왔다는 점에서 오키나와 문화 체험은 더욱 인상 깊었다.



역사를 통해 오키나와를 보다

오키나와 역사조사 보고서

오키나와 전쟁, 구 해군사령부호에서 벌어진 참상

고성준 / 한림대학교

1. 해당 주제를 선정한 이유

기존 계획서의 주제는 ‘구스쿠와 구스쿠를 통한 오키나와의 시대별 사건’이었으나 오키나와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자유 조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해당 주제로 작성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오키나와 전쟁이라는 큰 사건 속에서 전적지인 ‘구 해군사령부호’에 다녀온 경험과 조사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주제를 변경하게 되었다.



구 해군사령부호의 모습, 직접 촬영

2. 오키나와 전투와 오키나와인

오키나와는 이전에 류큐국이라는 독립국이었으나 1600년대에 일본에 정복되고 19세기 말에 일본으로 편입되어 일본 영토가 되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식민지 취급받기도 하였으며 전쟁 당시 내선 일체와 같은 논리로 일본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며 전쟁에 강제 동원되었다. 오키나와 주민 중 건장한 남성은 물론 어린 학생과 노인들까지도 징집하여 병력으로 사용되었고, 여성들의 경우 여학생부터 성인까지 후방의 간호병으로 끌려갔다. 하지만 미군과 병력 차이가 너무 크고 정신적으로 몰린 오키나와 주민들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하거나 자결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오키나와는 전쟁이 일어나고 석 달 만에 점령당했다.

3. 해군사령부에서의 참상

미군과 벌인 지상전에서 패배해 나하 일대와 해상을 점령당하고 포위된 일본군은 지하에 뚫은 땅굴을 기지 삼아 버티기 시작했다. 이것이 지금의 구 해군사령부호이다. 미군은 슈리성을 점령하기 위해 약 4만 5,000여 발의 포격을 나하에 타격했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함포사격을 피하고자 지하로 내려가게 된 것이다. 이곳에는 해병대 약 4,000명이 주둔해 있었는데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다. 좁디좁은 땅굴에서 수많은 사람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었다. 지하의 열기로 모두가 땀을 흘리는 상황에서 똑바로 누워 잘 수 없어 몸을 웅크린 채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불일을 보려 해도 장소가 마땅치 않아 터널 내에는 악취가 진동했고 부상병들을 치료할 의료실조차 약간 넓게 파둔 공간밖에 없었다. 석회석으로 이루어진 공간에 약간의 서늘함이 느껴지자 휴식을 취하려는 병사들이 선 채 서로 붙어 있는 것이 일상이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의 압박에 결국 군인 대부분이 밖으로 나가 사살당하거나 사령부 안에서 자결하는 등 모두 호 안에서 최후를 맞이하였다. 현재 호 안에서 수습된 유골은 약 2,400구 정도이다.

4. 직접 방문한 구 해군사령부호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호의 보존 상태였다. 한국의 문화재나 전적지의 경우 재현하거나 현장 보존을 위해 관광객이 다른 곳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두는 것을 지향한다. 이는 문화재 혹은 해당 장소가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인데 오키나와의 구 해군사령부호는 연구 혹은

발굴을 위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1970년대부터 관광객에게 전부 공개하는데, 그 상태가 매우 양호했다. 당시 느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주의 깊게 봤던 공간은 사령실과 수많은 파편이 튀 흔적이 있는 방이었다. 사령실은 공개가 제한되는 곳이지만 해설자분의 도움으로 잠시 출입할 수 있었다. 그곳에는 자결한 사령관과 간부들이 벽에 피로 쓴 문장과 자결했을 때 핏자국이 보였다. 벽에 쓴 글귀는 일본의 전체주의를 찬양하는 말이며 정황으로 보았을 때 옥쇄를 실현하고자 자행한 자결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공간은 여러 파편이 튀어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수류탄을 던져 자결한 공간이라고 해설자분이 설명해 주었다. 미군이 참호에 진입하기 전, 여러 병사가 모여 자결하고자 수류탄을 호 안에서 던져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호 외에도 여러 자료와 물건을 전시해두었으며, 전쟁 당시 사진들을 2층에 전시해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려고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한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키나와 역사 교육

히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으로 보는 전쟁의 결과와 평화의 중요성

김현주 / 한림대학교

1. 서론

처음 기획서를 작성할 때는 류큐무라 인근에 있는 무라사키무라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류큐국의 문화를 체험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3박 4일 동안 다양한 전적지를 보고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전적지에서 알게 된 전쟁은 책에서 읽었던 것보다 잔혹하고 참담했으며, 많은 사람이 이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일본에 대해 '가해자'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일본의 일부인 오키나와도 1945년에 미군과 전쟁이 치러졌으며, 이로써 많은 인명피해를 본 지역이다. 오키나와 곳곳에는 전쟁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당시 피해자 중에는 생존하여 지금도 오키나와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 전쟁은 오래전에 끝났을지언정

전쟁이 가져다준 피해와 사람들 마음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전적지를 돌아다니며 직접 눈으로 본 역사는 “전쟁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주었으며,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청소년의 마음가짐, 태도, 역사에 대한 인식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번 오키나와 현지 조사에서 배운 것, 느낀 것을 토대로 한국 청소년들에게 전쟁의 결과와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다고 느껴 ‘한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키나와 역사 교육: 히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으로 보는 전쟁의 결과와 평화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2. 히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이란?

오키나와 전쟁 당시 전장으로 보내진 교사들과 여학생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이다. 이곳은 당시 피해자였던 사람들이 모여 만든 곳으로, 후손들에게 그녀들(피해자들)이 세상에 살아 있었음을 알리고, 이러한 전쟁은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설립했다.

3. 히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으로 보는 전쟁의 결과

이곳에는 피해자들이 전장에서 어떤 생활을 보냈는지 서술되어 있다. 해당 자료를 보면 당시 학생들은 일본 군인들에 의해 전장으로 불려갔으며, 전장에서 군인들의 수술(대체로 신체 일부를 자르는 수술)을 돕거나 시신을 수습하는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 그녀들이

생활했던 곳은 동굴이었으며, 이러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끼니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다. 부상으로 예민해진 군인들에게 질책을 받는 일도 다반사였다. 그럼에도 전쟁이 곧 끝난다는 일본군의 말을 믿고 친구들과 과 웃고, 서로를 위로하며 버텼다.

미군의 공격에 버티지 못했던 일본군은 이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미 미군에 포위된 지역에서 여학생들은 도망을 다니다가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고, 그중에는 포탄에 맞거나 파도에 휩쓸리거나 갖고 있던 수류탄으로 자살한 이들도 있다. 이로써 전장에 동원된 교사와 학생 총 240명 중 136명이 사망하고 91명이 재향부대 등에게 학살당했다.

오키나와는 이러한 전쟁의 아픔을 알고 있으며 이를 후손에게 전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생존자 혹은 피해자의 후손은 전쟁에 대한 보상 또한 받지 못하고 있다. 히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 또한 정부가 세금으로 지은 곳이 아닌 생존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장소이다.

4.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이처럼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며, 생존한 사람들도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는 등 괴로워하고 있다. 특히 히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에는 전쟁 당시 10대 청소년이었던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만약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우리나라 학생들도 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중 갑자기 군인이 들이닥쳐 전장으로 불려나가게 될 수 있다. 가족과 떨어져 친구와 선생님 들을 의지하

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과도 헤어져 생사를 모르게 되거나 어제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쟁이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보내는 지금의 일상은 과거에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에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처럼 무고한 희생자를 늘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전쟁이 주는 결과를 배우고 이를 통해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국제 정세 한가운데 있는 오키나와의 현재와 평화를 위한 고민

박태규 / 한림대학교

1. 오키나와에서 경험한 것

오키나와 3박 4일 현지 교육에서 메이오대학의 많은 친구와 교류함으로써 일본 문화에 대한 현지인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었고, 오키나와의 다양한 자연 풍경으로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또 구 해군사령부호, 히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 오키나와 전적지 야전병원 터 그리고 무궁화 화단까지 여러 역사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오키나와뿐 아니라 일본의 전쟁에 대해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경험으로 나의 인문학적 사고가 성장한 것을 느낀다.

2. 외부인의 시선으로 본 미군 신기지

3박 4일 현지 교육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뜻밖에 이동 중 우연히 마주하였다. 그것은 바로 2일 차에 무궁화 화단으로 이동하다가 목격한 헤노코 미군 신기지 건설 현장이었다. 현지 교육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곳이어서 처음 봤을 때는 단순한 항구 공사인 줄 알았는데, 그 주변의 향의 팸플릿과 나중에 나카야마 씨의 설명을 듣고 ‘아, 저기가 헤노코 미군 신기지 건설 현장이고, 최근 꽤 큰 문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호기심에 버스로 이동하면서 헤노코 미군 신기지에 관해 조사한 결과 오키나와 시민 약 70%가 새로운 주일 미군기지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 오키나와가 일본의 최전선 기지 역할을 하는데도 일본의 47개 현 중 연간소득이 가장 낮아 일본 정부로부터 짊어지고 있는 부담감에 비해 혜택은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같은 날 한 메이오대학 학생에게 헤노코 미군 신기지와 오키나와에서의 생활을 슬쩍 물어보았다. 그 친구는 ‘헤노코 미군 신기지 건설에 반대 시위가 있기는 하나 아르바이트로 단기 고용된 사람들도 있는 등 정치적 문제가 얽혀 있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현지조사 중 만난 나카야마 씨는 헤노코 미군 신기지 건설에 대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신기지 건설을 막으려고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안내해주고 반대 시위를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 씀해 주셨다. 그러나 오키나와는 오래전부터 중국과 센카쿠제도(다오 위다오) 문제에서 지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의 대만해협 위기로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신냉전 시대의 핵심 군사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신기지 건설을 막아야 하는 것이 맞는 판단

일까?’,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 옳을까?’, ‘오키나와 현지인들은 자기 고향의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등 여행 도중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3. 오키나와 현지조사에서 얻은 것

한편, 오키나와에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다양한 추억을 쌓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일본에서 가장 큰 아쿠아리움인 ‘주라우미수족관’에서 고래상어를 보며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돌고래 쇼를 본 것이다. 그 뒤로도 친구들의 차를 타고 가서 오키나와 소바를 먹거나 돈키호테 매장에 가서 다 같이 쇼핑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키나와 소바는 우리나라의 돼지국밥 국물 같은 육수에 칼국수를 넣은 듯 익숙한 맛이 나서 맛있게 먹었다. 우리나라와 거리가 많이 떨어진 지역인데도 유사한 음식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밥을 먹으면서 오키나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공통 주제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신기했다. 나는 일본 노래를 자주 듣기에 내가 좋아하는 일본 노래를 알려주고, 오키나와 친구는 내가 모르는 노래를 추천해주면서 서로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서로 다른 지역, 다른 문화 속에서 살면서도 언어의 장벽을 넘어 공통 주제를 공유하는 시간이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다.

4. 실천할 수 있는 평화

평화를 이룬다는, 답이 나오지 않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데 이번 오키나와 현지 교육과 같이 현지 대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며 서로 공통점을 찾고 추억을 쌓는 과정이 대학생에게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실질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다. 이번 교류로 오키나와의 문화와 역사를 깊이 알 수 있었으며, 오키나와는 단순히 일본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휴양지가 아니라 일본 안에서도 독특한 문화를 지켜나가는 곳이자 내 친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되었다.

오키나와 현지 교류를 계기로 메이오대학과 한림대학교의 교류가 좀 더 활발해져 양국 학생들이 서로의 나라와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주라우미수족관 앞에서 기념 촬영

히메유리를 통해 알아본 전쟁의 참혹함

이영석 / 한림대학교

1. 해당 주제를 선정한 이유

이번 오키나와 현지교육에서 계획했던 대로 슈리성의 건축양식과 복원과정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고, 이로써 한국에서 대입이 가능한 복원 방법이 있는지 강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으나, 아직 복원이 끝나지 않아 2일 차 방문하기로 했던 계획이 무산되어 새로운 곳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였다. 다행히 계획이 바뀐 것을 오키나와를 가기 전에 인지하여 다른 주제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에 계획표에 있는 방문지를 직접 방문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주제를 탐색하게 되었다.

그렇게 첫째 날이 되었고 일정 대로 구 해군사령부호와 히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을 방문하면서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되는 전쟁의 참혹함과 이를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특히 히

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을 방문하여 히메유리에 관한 설명도 듣고 여러 개 전시관도 살펴보며 같은 대학생이어서 그런지 지금 본인 모습과 크게 대비되는 모습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히메유리를 통해 알아본 전쟁의 참혹함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2. 히메유리, 그들은 누구인가?

먼저 히메유리라는 단어는 오키나와 사범학교 여자부, 오키나와 현립 제1고등여학교 각각의 교지인 '시라유리^{白百合}'와 '오토히메^{乙姫}'에서 히메와 유리를 따온 단어이다. 이 당시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은 대부분 엘리트였다고 한다. 평탄할 것 같았던 그녀들의 학교생활은 1944년 일본과 미국의 태평양전쟁이 오키나와에 영향을 주기 시작



히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에서 들은 강의

하면서 위 두 학교 음악회에서 부르는 노래가 가요에서 군가로 바뀌고 영어 수업이 없어지는 등의 영향을 받게 됐다. 이후 1945년 3월 23일 사범학교 157명, 제1고등여학교 65명의 총 222명이 히메유리학도대라는 이름으로 오키나와 육군병원에 배속되었다. 이들이 배속된 육군 병원은 지하에 있는 호였다.

3. 히메유리, 그들의 역할

이 호는 그저 ‘병원으로 이용한다’였기에 제대로 된 병원 설비는 없었고 그저 동굴이었다. 이 동굴은 전쟁 중에 다친 병사들이 오는 장소였다. 다친 병사들은 눈앞에서 폭탄이 터져 다친 사람이나 총을 맞거나 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병원 안에는 피나 땀 같은 냄새가 안에서 환기되지 못하고 계속 유지되었다. 호 안은 생각보다 넓고 어두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환자들을 찾아다니느라 이들을 간호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였다.

여학생들은 다친 병사들을 간호, 물 급수, 식사 당번, 죽은 사람 장례를 담당하였다. 또한 절단 수술도 담당하여 팔이나 다리를 직접 자르고 동굴 근처에 매장했는데 이러한 일로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였다.

4. 이동할 수 없었던 그들

이후 1945년 5월 25일 병원 이동이 발표되었다. 미군이 북에서부터 점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남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걸어 다닐 수 없는 사람이 있어 그들은 이동할 때 이전 병원에 남기로 했는데 이들은 자결을 강요당했다. 여학생들은 남쪽에 있는 다른 호로 이동하였다.

1945년 6월 18일 해산 명령이 내려왔지만, 나갈 경우 포탄이 떨어지고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 되기에 히메유리학도대 인원은 나갈 수 없었다. 이후 미군이 이 동굴에 와서 “동굴에서 나와라. 나오지 않는다면 이 동굴을 폭파하겠다”라고 일본어로 말했다. 하지만 반미 교육을 통해 나간다고 해도 어떠한 폭행을 당할지 모른다는 마음에 못 나간 사람들도 있었다. 이후 폭탄을 투입하였고 히메유리학도병 38명이 죽었다. 이밖에도 자살한 여학생들 포함해서 222명 중 총 136명이 죽었다. 그렇기에 히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 앞에는 위령비가 있다.

5. 히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을 다녀오면서

오키나와 히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에서는 직접 여러 전시관을 둘러보며 어떠한 참혹한 일이 있었는지 보았다. 어떤 공부를 했는지부터 얼마나 힘든 곳에서 간호했고, 간호할 때 쓰던 도구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으며, 마지막 전시관에서 이들의 사연이 언어별로 기록된 책들을 보았다.

여기서는 그들이 병사들의 다친 몸에서 구더기를 보며 힘들어하는 이야기나, 같이 살아가던 친구가 순식간에 일어난 폭발로 눈앞에서 다시는 못 움직이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렇게 전쟁이나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된 유적을 방문함으로써

교훈을 얻는 다크 투어리즘을 직접 경험해보았고,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히메유리학도대의 사연을 기억하고 모두에게 전하고 싶다.



대학생을 위한 포문동 현지교육 ❶

오키나와에서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존을 생각하다

2023년 7월,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는 학생 15명과 함께 일본 오키나와를 방문했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서 유일하게 지상전이 전개된 땅, 본토를 위한 희생을 강요받는 땅, 징용으로 끌려간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사망한 아픔의 현장... 그 오키나와를 대학생들이 찾았다. 오키나와에서 느꼈을 '같음과 다름'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데 영양소가 되었기를 바라며, 학생들이 보고 느낀 점을 있는 그대로 이 책에 담는다.